
碩士學位請求論文

19世紀 國語의 連結語尾 研究

指導教授 金 泰 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金 素 英

1997年 8月

19世紀 國語의 連結語尾 研究

指導教授 金 泰 珉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7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金 素 英



金素英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7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崔 圭

李 圭



審査委員

70金

李 泰

李 珉



審査委員

金 素英

李 泰

李 珉



19世紀 國語의 連結語尾 研究

金 素 英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泰 現

이 연구는 현재까지 그 체계나 의미면에서 현대 국어와의 유사성으로 인해 연구가 미진했던 근대 국어 중에서 19세기 국어를 대상으로 하여 연결어미의 의미와 특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그 간행 연대가 정확한 자료 중 19세기말에 간행된 [太上感應篇圖說諺解]를 비롯한 道經類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연결어미의 모습을 고찰하고 그 유형을 선후행절의 의미 관계에 따라 크게 대등적·종속적·보조적 연결어미로 분류하였다.

보조적 연결어미는 종래의 부사형 어미라 지칭되어 온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연결어미의 범주에 넣을 수 없지만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여 하나의 서술어를 이루게 해 주는 구실을 함으로 연결어미 범주에 묶어 살펴 보았다.

그 하위 범주로 대등적 연결어미에 '나열', '반복', '선택', 종속적 연결어미에 '구속', '양보', '의도', '목적', '도급', '전환', '설명', '의심', 보조적 연결어미는 어미 형태에 따라 「-아/어」, 「-게」, 「-디/지」, 「-고」 로 분류하였다.

이들 연결어미의 유형 분류는 의미면을 기준으로 하여 나눈 것이므로 서로 중첩되어 쓰이는 경우가 있었다. 앞시대에서 뚜렷하게 구별되어 쓰이던 것도 그 의미의 유사성으로 인해 한 범주 속에 넣어 분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선행 연구자들과 그 견해에 있어 차이가 난다.

근대 국어의 연결어미는 중세 국어의 그것과 비교할 때 많이 간소화된 것을 볼 수 있다. /·// /봉/ 등의 문자의 소실, 의도법 선어말 「-오/우-」가 의미를 상실함에 따라 어미 형태나 결합 양상에 있어서 변모를 가져 왔다.

연구 대상 문헌이 한정되어 기술되지 않은 것이 많아서 그 全貌를 드러내지 못한 점이 없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체계의 모색으로 연결어미의 체계가 정립되리라 생각하며, 이러한 부분에서의 노력이 성과를 얻을 때 근대 국어의 全貌가 밝혀지고 더 나아가 국어사 기술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이 논문은 199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目 次

I.序 論	3
II.本 論	
1.대등적 연결 어미	
1)나열	14
2)반복	15
3)선택	16
2.종속적 연결 어미	
1)구속	45
2)양보	53
3)의도	56
4)목적	57
5)도급	60
6)전환	63
7)설명	67
8)의심	69
3.보조적 연결 어미	75
III.結 論	79
參考論文	81
Abstract	83

I. 序 論

우리 국어의 가장 두드러진 형태적 특성은 교착성이다. 즉, 우리 국어는 조사나 어미가 체언이나 어간에 붙어 통사의미론적 기능을 수행하는 첨가어에 속한다. 특히 국어는 어미가 매우 발달한 언어이다. 따라서 이 어미들의 특성을 검토한다면 국어의 형태적 특징이 밝혀지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대 국어에서 보여 주는 이러한 어미의 발달도 처음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세 국어의 어미와 근대 국어의 그것과의 차이에서 증명되듯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生成·變遷한 것이다.

근대 국어는 국어사의 시대 구분에서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사용되었던 언어를 가리킨다.¹⁾ 근대 국어는 중세에서 현대를 이어 주는 교량적 시기의 국어 즉, 근대 국어에서 현대 국어의 여러 특징이 형성되었다는 관점에서 볼 때, 근대 국어는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에 이르는 하나의 과도기 국어로서 자리매김되어 왔다. 이것이 종래 근대 국어에 대한 통념이었다. 이는 현대 국어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가치 평가라 할 수 있다. 중세 국어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국어사의 모든 시기가 과도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세 국어의 시기는 훈민정음의 체계가 정비되어 그 수貌가 드러난 때이며 현대 국어와의 상이성으로 인해 빈번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근대 국어의 시기는 현대 국어의 제반 특징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때였으므로 상대적으로 고찰 대상으로서의 관심도가 낮았다고 본다. 이러한 태도는 훈민정음 창제를 전후한 시기의 국어 연구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쏟아왔던 데에도 그

1) 이기문,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1991, pp.185-186.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까닭에 15세기를 비롯한 중세 국어의 연구는 많이 행해져 왔으나 근대 국어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렇듯 국어사 기술에 있어서 15·16세기 언어 연구에만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서 현대 국어에 이르는 중간 단계가 국어사에서 생략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근대 국어의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국어사에서 바르게 자리매김될 때라야 비로소 우리 국어의 참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 국어의 제반 특징이 드러나기 시작한 때이므로 이에 대한 정밀한 연구는 현대 국어의 이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근대 국어는 16세기말 서양 문물의 접촉으로 인해 각성된 새로운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가져 온다. 언어에 끼친 영향도 물론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다. 근대 국어는 현대 국어에 바로 이어져 두드러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나 '·'음은 16세기에 제 1차 소실, 18세기에 제 2차 소실로 인해 音價는 소실되었으나 글에는 불규칙하게 표기되었고, 표기법도 현대국어와는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근대국어에 대한 연구는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연구로는 홍윤표의 「근대국어연구 I (1994)」¹⁾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연결어미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대한 언급은 국어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근대 국어의 연결어미 유형에 대해 박병채(1992)²⁾, 강길운(1993)³⁾이 부분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모습은 알 수 없다. 박병채는 부사형 어미에 대해 언급하고 연결어미를 14개의 하위 범주로 분류하고 있고, 강길운은 연결어미(부동사 어미)를 18개의 하위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2) 박병채, 「국어발달사」, 세영사, 1992.

3) 姜吉云, 「國語史精說」, 螢雪出版社, 1993.

이에 이 연구는 19세기 후기의 문헌 중에 道經類에 속하는 『關聖帝君明聖經諺解(1855)』, 『南宮桂籍(1876)』, 『過化存神(1880)』, 『三聖訓經(1880)』, 『太上感應篇圖說諺解(1852)』, 『竈君靈蹟誌(1881)』, 『敬惜字紙文(1882)』, 『關聖帝君五倫經(1884)』 등의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다. 19세기 언어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자료는 時調, 歌辭, 小說 등의 문학 작품과 다수가 있으나 이것들은 대체적인 연대 推定은 가능하나 정확한 간행 연대를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정통 국어 자료인 위의 문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종래의 연결어미 유형 분류는 연구자에 따라 그 관점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근대 국어는 현대 국어의 前段階이므로 현대 국어에는 근대 국어의 체계가 반영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현대 국어의 체계⁴⁾에 맞춰 이 문헌에 나타나는 19세기의 국어에서 가장 다양하게 드러나는 연결어미를 분류, 그 의미와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연결 어미와 접사, 높임법, 시상 등의 문법 요소와의 결합 양상과 그 기능을 살펴 보겠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음운적, 통사적 특성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상술하지 않는다.



4) 최현배(1955)는 현대 국어의 연결 어미를 ① 구속형 ② 방임형 ③ 나열형 ④ 설명형 ⑤ 비교형 ⑥ 선택형 ⑦ 연발형 ⑧ 중단형 ⑨ 첨가형 ⑩ 익심형 ⑪ 의도형 ⑫ 목적형 ⑬ 도급형 ⑭ 반복형 등 14 개의 하위 범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 분류 중에서 이 연구의 하위 범주에 들지 않은 ⑤ 비교형 「-거든」을 이 연구에서는 '구속'에 포함시켰고, ⑦ 연발형 「-자」의 예는 찾지 못하였으나 이 또한 그 의미상 '구속'에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연결 어미를 12개로 하위 분류하였다.

引用文獻과 略號

<太上>	太上感應篇圖說諺解	1852
<關明>	關聖帝君明聖經諺解	1855
<南宮>	南宮桂籍	1876
<過化>	過化存神	1880
<三聖>	三聖訓經	1880
<竈君>	竈君靈蹟誌	1881
<敬惜>	敬惜字紙文	1882
<關五>	關聖帝君五倫經	188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I. 本 論

용언은 주체를 서술하는 기능을 갖는데 이런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활용이다. 활용이란 어간에 다양한 어미가 붙어 쓰이는 것을 말한다. 어간에 붙는 가변 요소인 어미는 어말 어미(final ending)와 선어말 어미(prefinal ending)로 나뉜다. 어말 어미는 앞에만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가 올 수 있는 폐쇄 형태소(closing morpheme)이므로 앞에만 짧은 줄표를 붙여 표시한다. 그리고 선어말 어미는 그 앞뒤에 다른 선어말 어미 또는 어말 어미가 올 수 있는 개방 형태소(nonclosing morpheme)이므로 앞뒤에 짧은 줄표를 붙여 표시한다.

선어말 어미는 서법, 시제, 상, 태의 직능을 나타내는데, 이는 「-는/는-」 「-았/었-」 「-더-」 「-리-」 등 시상을 표시하는 것과 「-시-」 「-사오/오-」 등의 높임 표현의 것, 그 의미가 소멸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쓰이는 의도의 선어말 어미 「-오/우-」가 있다.

접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비록 어근의 수효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접사로 처리되나 선어말 어미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어말 어미는 종결 여부에 따라 종결 어미와 비종결 어미로 나눌 수 있고 비종결 어미는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로 나뉜다. 종결 어미는 그 문장 종결 방식에 따라 평서형, 의문형, 감탄형, 명령형, 청유형으로 나뉜다. 전성 어미는 용언 어간에 붙어 일시적으로 다른 품사와 같은 성질로 바꾸는 어미로 관형사형 어미와 명사형 어미가 있다.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을 홑문이라 하고, 두 번 이상 나타난 문장을 복문이라 한다. 이 복문은 다시 하나의 주어진 문장이

절의 형태로 다른 문장 속에 안겨 있는 내포문(안긴 문장)⁵⁾과 두 개 이상 이상의 홑문장이 이어져 구성된 '이어진 문장'으로 나뉜다. 이어진 문장에서 앞에 위치하는 절을 '선행절'이라 하고 뒤에 위치하는 절을 '후행절'이라 한다. 연결어미⁶⁾는 이 두 개 이상의 홑문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미를 말한다.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에 따라 사건이 대등하게 접속될 때는 대등적 연결어미, 계기적인 사건이나 선후 관계로 접속될 때는 종속적 연결어미, 어미 자체는 특정한 의미 없이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보조적 연결어미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연결 어미를 크게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로 나누고 선후행절의 의미 관계에 따라 세분하고 그 의미와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 대등적 연결 어미

대등적 연결 어미는 두 문장의 의미가 대등한 관계로 연결되는 어미를 말한다. 이에는 「-고」, 「-며」, 「-랴」, 「-거나/거나」 등⁷⁾이 있는데 문헌을 통해 자세히 고찰하여 본다.

5) 내포문의 유형에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이 있다.

6) 안병희·이광호(1990)는 이 어미를 부동사 어미, 접속 어미라고도 하는데, 부동사 어미는 후행의 다른 용언과 의미적 연관성을 갖는다는 데 중점을 둔 용어이고, 접속 어미는 문장과 문장을 접속시켜 주는 통사론적 기능에 초점을 둔 용어이므로 접속 어미라는 명칭을 택한다고 한다.

7) 안병희·이광호(1990)는 「-나」, 「-나마는」 등을 대등적 연결 어미의 범주에 넣는다. 현대 국어에서도 이익섭·임홍빈(1986) 역시 그와 같은 의미와 기능을 갖는 「-으나」, 「-지만」을 같은 범주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 어미들을 양보의 의미를 갖는 종속적 연결 어미로 다루겠다.

1) 나열

행동이나 사실의 나열. 첨가를 나타내며 두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연결어미를 말한다.

(1) 「-고/오」

계기적 동시적 사건의 행동을 나열하는 뜻을 가지며 두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갖는 어미이다.

중세국어에서는 /r/ /j/, 선어말어미 「-리-」, 서술격조사 「-이-」 뒤에서 /ㄱ/이 탈락했다.

- 고히 길오 눕고 고드며(釋譜19:7)
- 뷔오 피오코 물가(月釋9:21)
- 그 數 | 算으로 몬내 알리오 오직 無量無邊阿僧祇로 닐웁디니(月釋7:70)
- 子는 아드리오 孫은 孫子 | 니(月釋1:7)

(1) ㄱ ·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행하면 (南宮9)

- 제몸 공명과 쳐 양시(楊氏) 병 낫기만 벌고 과거흔(嬾) 어미 잇스되 돕기를 비는 말 아니호를 인호야(南宮11)
- 믿음은 모질고 것호로는 인조흔 체호며(太上 大文解8)
- 공이 그 뜻을 알고 분연(분然)호여 왈(太上1:5)

ㄴ · 네가 맛당이 던시 장원을 흘거시오 칙문 글제는 도를 무르리라(南宮9)

- 나라를 잡는 거슨 신하의 근본이오 군스를 익기는 거슨 장슈의 큰 국량이니(關明 26)
- 인의에 선비는 텃디의 고굉이오 충효의 신하는 제왕의 동량이오(三聖 教諭1)

ㄷ · 연슈는 팔십이세요 오지 다 등과호니라(南宮6)

- 무릇 스롭의 믿음은 곳 신명이요 신명은 곳 믿음이라(三聖3)

그러나 19세기 국어에서는 (1ㄱ)에서 처럼 /ㄹ/ 뒤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1ㄴ)에서 처럼 서술격조사 (繫詞) 「-이-」 뒤에서만 /ㄱ/이 탈락하고 있다. 그리고 (1ㄷ)은 근대 국어에서는 「-이오」가 쓰이기도 하고 「-이요」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⁸⁾

문헌을 통해 나타난 「-고」의 의미를 살펴 본다.

- (2) ㄱ · 여인이 문창사를 민들고 밭양 대군세 괴도호고 공명을 비더니(南宮10)
 · 과연 장원의 싸히고 벼술이 소보대학스의 니르니라(南宮14)
- ㄴ · 남그로 착고를 만드러 슈족을 잡으고 구을녀 폭양의 쏘이며(太上:2:13)
 · 승경진이른 스름이 벼술을 굴고 집의 도라오미(龜君17)
- ㄷ · 샷기 빈 증심을 상히우고 안논 식 알을 찌치오며……버레 굶글 머이고 시의 집을 업지르며 (太上: 大文解5)
 · 무고히 거복을 죽이고 비암을 쏘리논(太上: 大文解10)

(2 ㄱ)은 두 행동이 시간적으로 나열됨을 나타내며, (2 ㄴ)은 동시적 사건의 나열을, (2 ㄷ)은 대등한 두 행동, 사건의 나열을 나타낸다.

- (3) ㄱ · 오리고 오리 변화하면 괴질이 순전흔터로 도라가리니(三聖21)
 · 쓰흠하실 씨의 썩고 썩여 움지기고즈 흐는 모양(關明15)
 · 창밧게 날이 더되고 더되다 흐니(關明19)
 · 엄동의 찌러지고 찌러졌다가 양춘의 발흐느니(關明22)
 · 삼디까지 놓고 놓푸리라 흐시니(關明25)
 · 반다시 마음 가온디 맑고 맑가 흐 터럭만큼도 잠념이 업셔(三聖20)
 · 깃분 더 두고 두어 조연이 므음의 어버이을 잇지 못흐야(三聖20)
 · 그러흔 덕에 그르시 등글고 등근 거시요(三聖 教諭2)

8) 현행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연결형에 사용되는 ‘-이요’는 ‘-이오’로 적는다.”(15항, 붙임3)라고 하고 있다. 이는 예말에 ‘ㄱ’이 묵음화하여 ‘-이오’로 굳어진 것이긴 하지만, 다른 낱말의 접속형에 ‘-오’ 형식이 없으므로, 소리나는대로 ‘-요’로 적기로 한 것이다.

- 나 · 뉘웃치고 뉘웃치고 뉘웃쳐 흐면(三聖 教諭2)
 - 곳치고 곳치고 곳치면(三聖 教諭2)
 - 너그럽게 하고 너그럽게 하고 너그럽게 흐면(三聖 教諭2)
 - 저버 심각하고 저버 심각하고 저버 심각하고(三聖 教諭2)

- 디 · 공경하고 스랑하는 마음을 둘 거시니(三聖20)
 -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너이고(三聖20)
 - 경계하고 살피는 마음을 너이며(三聖20)
 - 불상하고 민망하는 마음이 느고(三聖21)
 - 씨로 밭고 투기호불 너며(三聖23)

- 리 · 이 말숨을 공경하고 이 말숨을 봉행하면 턴록이 다른 세상에 맞치리라 (三聖 教諭3)
 - 중요한 것은 당기고 머물고 안고 놓는 더 항상 이 마음을 심각하여(三聖25)

(3)의 예는 표면상으로는 단어의 반복을 나타내어 두 문장을 이어주는 기능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는 단어가 반복됨으로 인해 그 의미가 심화되고 강조됨을 나타낸다. (3 가)은 같은 단어의 반복을 나타내는데 (3 나)은 그 확대형이고, (3 디)은 다른 단어의 반복을 나타내며 (3 리)은 그 확대형이다.



- (4) 가 · 갓난 조식을 상히오고 복중의 잇는 티를 씨르치며(太上 大文解9)
 - 부지런니 심우고 부지런니 가라야 이의 츄슈을 헐거시요(龍君32)
 - 식벽이면 진경을 숨 편식 외오고 만 장을 박여 광포 호앗더니(過化20)

- 나 · 날마다 그 정성을 슬피시고 이에 칠즈 삼너를 두게 호샤(太上1:1)
 - 다 관작을 더으시고 거션으로 신선정과를 엇게 호시니라(太上1:1)
 - 직너를 나리워 그 쳐를 삼으시고 날마다 비단 흔 필식 뿐 그 몸을 속양케 호시고 귀즈를 두게 호시니(太上1:2)
 - 티종이 드르시고 괴특이 넉이사 츄밀스를 호이시고 그후 벼술이 네부상셔의 니르 럿더라(太上2:7)

· 이 뜻을 상계 밋서 알으시고 네 죄를 사하시니라(太上5:3)

ㄷ · 데묘의 비알하옴고 데군의 화상 혼 본을 뵈셔 도라 왔더니(南宮2)

· 잠수시면 요를 국에 뵈옴고 안즈시면 요를 담에도 뵈옴단 말(南宮9)

· 우리등이 명을 뵈즈옴고 송구황능하온 중 스스로 생각하되(過化10)

(4 ㄱ)은 의도법의 선어말 어미 「-오/우-」와의 결합 양상을 보여 주며, (4 ㄴ)은 높임 표현의 「-시-」, (4 ㄷ)은 겸양 표현을 나타내는 「-옴/즈옴-」과의 결합 양상을 나타낸다. 이 선어말 어미는 중세 국어의 「-습-」에서 온 것으로 구어체보다 서간문, 기도문 등 문어체에 많이 쓰였다.

(5) ㄱ · 이듬히 과연 벽음 장원의 썩이고 후의 벼살이 사랑의 이르니라(龜君21)

· 그이 경문을 더러이고 이 경문을 만홀이 하면(三聖 教諭2)

· 티종이 드르시고 괴특이 너이샤 추밀스를 하이시고 그후 벼살이 네부상셔의 니르렀더라(太上2:7)

· 그 어미로 하여곰 신곡(새곡식)을 방하 써어 밥을 지이고 뉘을 술마 부채 갖치 먹은 후의 남져지로뵈어미를 쥬니(太上4:24)

· 고을 관원이 되어 송스결단을 공변되지 아니케 하였시니 이의 그 벼살을 써이고 아전의 회리를 뵈아 …… 집을 티우고 관원은 마춤니 벼살이 써러졌다 하더라(太上4:48)

ㄴ · 뇌정이 이러나 부엌 압히 썩이고 별악쳐 죽이니(龜君14)

· 경문을 박이고 만들며(三聖5)

· 경문을 박기고 만들며(過化6)

ㄷ · 과연 장원의 썩히고 벼살이 소보대학스의 니르니라(南宮14)

· 머리를 버히고 형상을 난홀 거시오(三聖7)

· 미월 삭망이면 반다시 등잔을 발키고 향을 살느(龜君2)

ㄹ · 지앙은 남의게 옴기고 몃슬 닐흠은 남의게 보너오며(太上 大文解6)

· 악한 거슬 숨기고 착한 거슬 드러니며(三聖7)

口 · 부엌 알리 향을 뿜오고 항상 결정호미 맛당호고(寵君6)⁹⁾

· 세 가지 두려운 거슬 잡아 씻줄 세우고 네 가지 아는 거슬 도라보아(三聖 拜心5)

· 부술 들어 흐리우고 읍지의 올니지 아니호엿더니(太上2:24)

ㅂ · 일즈의 안기를 헤치고 하늘을 다시 보미(寵君34)

(5)에서 보면 사동 접사 「-이-」, 「-히-」, 「-기-」, 「-우-」와 강세 접사 「-치-」와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5 ㄱ)을 보면 사동 접사와의 결합 양상이 현대 국어와 다름을 볼 수 있다. 현대 국어에서는 “더러이고”, “지이고”, “박이고” 등은 파생적 사동사를 만들지 않는 것 들이다.

(6) · 인호여 하직고 갖더니 그 후 그 집의 서지롤 호미 도식(道士)글을 올니 고 업드여 오런 후 니러나(太上1:9)

· 홀노 즈도 니불이 붓그럽지 아니코 홀노 흥호야도 그립즈가 붓그럽지 아니탄 말(南宮9)

(6)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자음 뒤에서는 「호」가 모두 줄고 모음이나 유성 자음 뒤에서는 「호」만 줄어지므로 /ㅎ/은 뒷자음과 합쳐져 거센 소리로 난다.¹⁰⁾ 이는 현대 국어와 같은 체계가 이 시기에도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9) 아래의 예와 같이 접사 「-오-」가 없이 쓰인 예도 발견된다.
향을 뿜고 죠신 압히 괴도호야 정성으로 악결호니(寵君11)

10) 현행 맞춤법에도 제 40항에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 소리가 될 적에는 거센 소리로 적는다.”

예) 간편하게-> 간편케 , 혼하다-> 혼타

[붙임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예) 거북하지-> 거북지 , 넉넉하지 않다-> 넉넉지 않다

(2) 「-며」

나열, 의미의 첨가 등의 의미로 두 문장을 연결시키는 어미를 말한다. 이 어미의 어원은 동명사형 어미 '口'과 열거의 보조사 '여'가 결합된 것으로 추정된다.¹¹⁾

중세 국어에서는 여러 가지 동작을 나열할 경우에는 끝에 「하다」를 붙인다¹²⁾고 했으나 19세기에서는 그 예가 발견되지 않는다.

(7) · 혐의를 심각하여 그치지 아니하면 뵙성을 경멸히 녀이며 나라 정수를 어즈러이며 작상의 아닌디 미츠며 형벌이 무죄한 디 미츠며……이러듯 한 죄를 범한 자는 소명지신이 그 죄의 경중을 조츠 괴와 산을 췌앗느니 (太上 大文解 4)

문헌을 통해 나타난 의미를 고찰 한다.

(8) ㄱ · 이 혼 가지 일을 노코는 다시 학문이 업스며 이 혼 가지 일을 노코는 다시 공업이 업느니(南宮3)

· 텃디는 이 효도의 덕으로 미즈 일위스며 일월은 이 효도의 빛츠로 발그물 발호미니(南宮3)

· 견드여 잔인한 닐과 음희한 닐을 지으며 은근이 낭선한 사람을 상히호며(太上 大文解3)

· 상탁도 빼스며 심호면 존혹의도 좃밧으며(敬惜1)

ㄴ · 가며오며 조서히 보고 살펴 시러곰 터럭 만삼 뿐 만삼이라도 유루치 말며(關明8)

(8 ㄱ)은 나열을 의미하며 (8 ㄴ)은 동작의 반복을 나타낸다.

11) 안병희 · 이광호,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1990, p.306.

12) 큰 법을……닐그며 외오며 사겨 니르며 쓰며 호야(釋譜19:37)

- (9) ㄱ · 날마다 반드시 날우오며 신선됨을 가히 바라올지니(太上 大文解3)
 · 향비논 올흔 도리의 어귀오며 아래 사름을 몹시 구러 공을 도모호며(太上 大文解4)
 · 제 지은 죄를 남을 업어 달의오며(太上 大文解4)
 · 사람의 거슬 덜어 제게 보타오며(太上 大文解5)
 · 못된 거스로 뼈 도흔 거슬 밋고오며(太上 大文解5)
 · 제 지은 허물은 남의게 밀우오며(太上 大文解6)
 · 몹슬 일흠은 남의게 보니오며 헛된 기림을 도모호며(太上 大文解6)
 · 네 법 밋기 증성을 드히며 오곡을 훗쳐 브리오며(太上 大文解6)
 · 사름의 착흔 날을 가리우며 사름의 더러운 거슬 드러니며(太上 大文解5)
 · 제몸의 단쳐를 가리우며 위세를 방자호여 사름을 험박호며(太上 大文解6)

ㄴ · 사름의 농스를 상히오며 사름의 혼인을 씨치며(太上 大文解5)¹³⁾

ㄷ · 사름마다 공경호며 하늘이 도오시며 복록이 쟀라오며 모든 요스흔 날이 멀니 가며
 (太上 大文解3)

· 신명이 감찰호샤 열 눈으로 보시며 열 손으로 가르치시믄……그러홀 이치라(過化4)

(9)은 선어말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나타낸다. (9 ㄱ)은 의도법 「-오/우-」와의 결합 양상을 보여 준다. (9 ㄴ)의 예는 /ㄱ/음의 소실로 인하여 모음조화가 파괴되고 「-오-」 「-우-」가 혼용되어 쓰임을 보여 준다. (9 ㄷ)은 높임 표현의 「-시-」와의 결합 양상을 보인 것이다.

- (10) ㄱ · 더러운 음식으로 사름을 먹이며 요술노 사름을 호호이며(太上 大文解8)
 · 거죽 것슬호야 뼈 나라홀 속이며 근분을 저바러뼈 몸을 멸호느니(南宮3)
 · 글즈쁜 조회를 더러이며(過化6)

ㄴ · 지혹 풀을 버히며 섬들을 쇼쇄호은 잇서도(三聖 拜心4)

13) · 샷기 빈 증성을 상히우고 안는 식 알을 씨치오며(太上 大文解5)

ㄷ · 약한 거슬 숨기고 착한 거슬 드러니며(過化5)

ㄹ · 지물을 더러 스품의 아름다운 일을 닐우며(南宮8)

· 지물을 더러 아름다운 일을 일우며(三聖5)

ㅁ · 남의 혼인을 씨치며 남의 명절을 문으질으며(過化5)

ㅂ · 간과 창지 다 뵈며 기 짓는 소리호고(寵君23)

(10)은 사동 접사 「-이-」 「-히-」 「-기-」 「-우-」 피동 접사 「-이-」 강세 접사 「-치-」 와의 결합 양상을 보인 것이다.

「-며」에 「-서」가 붙어 쓰이게 되면 동시적 행동의 나열을 나타내게 된다. 이 어미는 현대 국어에 이르러 「-면서」로 바뀐다.

(11) · 직시스명게 제스호거늘 허물면서 민니라(寵君23)

2) 반복



「-락」 14)

다른 동작으로의 전환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반된 두 말이 이어 나며(상징적 수법) 이 경우 끝에 보조 용언 「-호다」를 연결한다.15)

「-락」은 한 동작에서 다른 동작, 상태로 전환을 나타내지만, 「-락...락」은 한 동작에서 다른 동작이나 상태로 전환을 되풀이함을 나타낸다.

14) 허웅(1981)은 「-락」은 반복을 나타내나 이것이 겹친 형태인 「-락...-락」은 「-락」의 겹침에 지나지 않으나 반복보다는 전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환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힌다.

15) 허웅,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1981, pp.607-608.

- (12) · 혼 적은 비 업더져 물결을 조초 쓰랴 잠기랴 하며 혼 사롬이 업더진 비등의 의지 혼 여 부루지지거늘(太上1:25)

3)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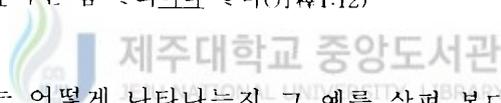
여러 가지 중에서 아무 것이나 상관없이 가림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으나」

여러 가지 중에서 아무것이거나 상관 없이 선택함을 나타낸다. 줄기에 바로 붙기도 하나 대개 선어말어미 「-거(어)-」를 앞세운다.

중세 국어에서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상태 중에서 가리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대개 「-으나……으나」가 두 번 이상 되풀이 되며 뒤에 마디를 연결하지 않고 보조 용언 「-하다」를 붙이는 경우가 발견되나 19세기 국어에서는 그 예가 보이지 않는다.

- 놔드려 불너 날어 여러 뵈어나 제 쓰거나 놔히여 쓰거나 호고(釋譜9:21)
- 도흔 몸 드외어나 구즌 몸 드외어나 호미(月釋1:12)



19세기 국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예를 살펴 본다.

- (13) 가 · 그 후의 안즈나 누으나 소경의 혼이 눈 앞회 뵈는지라(太1:2:20)

· 누으나 안지나 잡고 잇기랴(關明33)

- 14 · 사롬이 날을 뵈워호거나 날을 해방흠을 만나도 너 능히 용납호여 밋는지라(太1:2:52)

· 셔호로 보너거나 동으로 창희에 더져 텃디 조화희 돌너 보너면(敬惜3)

· 귀명의도 글즈를 삭이거나 브지 말게 호라(敬惜9)

· 신령의 말이라 호고 허무묘명이라 호야 치지호고 못지 아니커나 그렇저령 우유호

야 치지 않고 못지 아니키나 놓고 머리 핑키 어렵다 할야 치지 않고 못지 아니하면(關五五)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등적 연결 어미로 '나열'에 「-고」 「-며」, '반복'에 「-락」, '선택'에 「-으나」 등을 분류하였다.

이들의 의미를 살펴 본 결과 '나열'의 「-고」는 '사건의 나열·첨가'를 나타내며, 중세 국어에서 나타났던 /ㄱ/ 탈락은 나타나지 않고 지정사 뒤에서는 근대 국어 시기에 이미 「-요」로 변화하여 「-요」와 /ㄱ/ 탈락 현상을 보이는 「-이오」가 혼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며」는 '사건의 나열·동작의 반복'을 나타낸다.

'반복'의 「-락」은 '동작의 반복'을 나타내며, 상반된 두 말이 이어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선택'의 「-으나」는 선어말 어미 「-거-」를 앞세우는 특징이 있다.



2. 종속적 연결 어미

종속적 연결 어미는 다른 문장에 종속적인 관계로 연결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부르는 용어이다. 즉, 종속적 연결 어미는 두 문장을 연결시켜 문장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대등적 연결 어미와 같으나 종속적 연결 어미가 연결되는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하여 종속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1) 구속

구속형이란 원인. 조건. 가정. 반응 등 다음에 오는 말의 내용을 제약하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를 말한다.

(1) 「-니」

「-니」는 뒷절의 사건에 대한 ‘원인, 이유, 조건, 상황, 설명의 계속’을 나타낸다. 이 어미의 의미가 19세기 국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 본다.

- (14) 가 · 또 익미이 사람을 죽인 자는 제 또흔 죽을지니 이는 칼을 밧고와 서로 죽이는 죽시오(太上 大文解10)
- 반드서 길흐며 경스물 엇을거시니 이 니른바 화물 도로혀 복을 숨는 법이라(太上 大文解11)
 - 홀연 드르니 전너(殿內)로서 왕용여를 불너 드리와 뵈라흐거늘(南宮11)
 - 옥천스의 썩셔 밤숨으로 범인을 쥬노니 범인은 절의 중이니(關明6)
 - 집집이 스명흐는 조신이 잇스물 알진니 엇지 존승흐야 밧드러 제스치 안니 흐리요(寵君1)
- 나 · 눈물을 거두고 썩홀 보니 문득 근처 잇서 썩히 낫는지라(太 1:1:3)
- 일일은 향산스의 가노더니 한 부인이 비단 보홀 난간 우히 노코 부처의게 밧기틀 냥구이 흐다가(太 1:1:51)
- 다 · 너의 집사람이 밧셔 갓시니 가히 나올지라(太 1:3:8)
- 더장뵈 스킨로써 집을 흘거시니 엇지 형제 업는 거슬 근심흐리오(關明16)
- 르 · 우리 등이 다 너희 무리를 위흐야 별을 밧노니 너의 무리는 오니려 우유이 차지 흐논야(過化10)
- 혼집에 스명흐는 조신이 계시는니……엇지 쥬고만 곳지는 신령의 몸이 업스시미 잇슬이요(寵君1)
 - 유린이는 벅벅이 혼 과거를 어뜰너니 어버이를 섬기미 불근인정(불근인정)혼 고로 과거의 너치고(南宮12)
 - 나히 룡십구세의 선종(善終)홀너니 그 지조를 밧고 거오흐며 희악흐고……그 벅슬

홀 복을 다 업시 하시니 (南宮12)

· 선인 군즈라 일카라시니 너엇지 감당하리오(太上1:38)

· 상제 옥년을 주샤…… 오십 삼세의 니르러 정승하게 하여 계시더니……니웃집 너
즈롤 규시하고 취코져 하여 그 아버톨 옥의 가두앗시니(太上3:28)

· 이 현 귀운은 죄을 일우나니 만일 흥능하기를 요구할진던 화헌 거시 상계되는니라
(龜君32)

口 · 우연이 부역을 발꼬 발리을 집엇더니 이 밤의 초신이 현몽하여 꾸지져 갈오스디(龜
君16)

(14 ㄱ)은 설명의 계속을 나타내고, (14 ㄴ)은 뒷말의 상황을 알게된 배경을,
(14 ㄷ)은 뒷말에 대한 이유를, (14 ㄹ)은 상황의 반전을 나타내고, (14 ㅁ)은
계기적 사건의 순서적 기술을 나타낸다.

(15 ㄱ) · 시용에 말어든 거시 원러 복이 아니 강복이 엇지 강남에세 나흐라(龜君33)

ㄴ · 미양 대군계 괴도하고 공명을 비더니(南宮10)

· 네 임의더로 베푸니 바야흐로 장차 스스로 스통이 알이 업스믈 쾌흔 체하나(龜君
37)

· 비록 능치 못하는 알기는 능히 아는니……엇지 존승하여 밋드러 제스치 안니하리
요(龜君1)

(15 ㄱ)의 예에서 「-니」가 「-이」로 표기된 것이 보이나 이것은 「-니」
가 誤記된 것으로 보인다. 이 문헌에서는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¹⁶⁾
(15 ㄴ)의 예는 /ㄷ/, /ㅈ/ 앞에서 어간 말음 /ㄹ/이 탈락된 예로 현대 국어의
체계가 이미 근대 국어에 마련되었음을 증명하는 또 다른 예라 하겠다.

16) · 몇 번 스통헌 인연을 지나되 뜻지 혼들이지 아니 하니(龜君36)

· 공경하며 숨가며 겸손하며 온공하기를 도쳐의 행하고(龜君40)

다음으로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 본다.

중세 국어에서는 강조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거/어, -가/아」와 「-아/어」가 연결되면 그 뒤에는 반의를 뜻하는 말이 오게 된다. 반의의 표현은 물음의 형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법이기 때문에 앞의 강조의 선어말어미와 함께 강조의 뜻을 한층 효과적으로 나타내게 된다. /ㄹ/이나 /j/뒤에서 「-거/어」, 「-가/아」가 교체 되었다.

- 功德을 國人도 숲거니 漢人 ㅁ순미 엇더호니잇고(龍歌72)
- 내 너 이거슬 怪異히 너기가니 어느 구퉁여 나료(杜諺25:29)

근대 국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 본다.

- (16) ㄱ · 인간의 데일날(第 一 日)이 되느니 내 맛당이 인간의 데일 일(事)을 말호리라(南宮3)
- 길흔 사롬은 말이 선호고 보오미 선호고 힘호미 선호게 호느니……반드시 복을 나리우실 거시오(太上 大文解11)
 - 네게 착흔 두 아들을 밧고아 주어 네 뒤를 밧나게 호시느니 망녕된 원망을 너지 말나 호거늘(太上:3:47)
 - 너가 이 말슴을 지어 스흘으로 봉행호기를 원호노니……심신의는 크게 이익호리라(過化7)
 - 글을 식여 이 아리 습가 기록호노니……복만 마즈려 호미 아니라……항상 밧드려 제스혈씩(龜君24)
 - 다함이 신명이 보시미 고태 잇느니 만일 고집을 잡아 종시 고치지 아니면……곤호고 궁호미 이치의 당연호리라(龜君31)
- 나 · 즉시 신전에 업디여 스스로 뉘웃치를 밧세호얏너니 스흘 후의 기 흘연 뵈지 안니호니 (過化19)
- 나히 룡십구세의 선종(善終)호너니 그 지조를 밧고 거오호며 험악호고……그 벼슬 홀 복을 다 업시 호시니 (南宮12)

- ㄷ · 령지가 최상 우회 낫더니 두 공이 문장과 상업으로 천고의 탁월하고(南宮10)
- 옥중주라 하는 나는 글 잘하고 말 잘 함으로 사중이 추복하더니(南宮10)
 - 형이 경계호더 듯디 아니하드니 일일은 말국이 업쳐져 그 비의 씨치미(過化23)
 - 조군 압회셔 정성으로 비러 오백권을 허송하엿드니 그 날 늦게야 역질 중세가 즉시 두루혀 얼굴이 불고 나오니라(龜君45)
- ㄹ · 화괴를 먹지 아니하면 병나기 쉬우리니 너 엿지 슈고를 앗기리오(太上 5:10)
- 오리고 오리 변화하면 기질이 순전헌더로 도라가리니……우흐로……명과을 증험할 거시오……아리로……음덕이 자손의 맛츨리라(過化22)
 -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행하면……천 가지 상세 구름 갖치 모되리니 엿지 음줄 가온더로 좃차 어더오미 아니리오(南宮9)
 - 나히 룡십구세의 선종(善終)홀너니 그 지조를 밋고 거오하며 험악하고……그 벼슬 홀 복을 다 업시 하시니 (南宮12)
- ㄴ · 이에 아들 순을 나하더니(南宮9)
- 장괴 놀라 상아리 슈엿더니 그 지아비 쳐드려 닐러 왈(太上4:35)
 - 변화와 왕건봉으로 하여곰 구완을 청하라 보니엿더니 그 두 사람이 괴 약을 어귀우니(太上5:8)
 - 나라 다시리는 거스로 근분을 하엿더니(關明9)
 - 형의 상외 돈연이 변하야스니 슈빅만 심명을 살넛도다(南宮6)
 - 기다리시기를 인공이 간청하왔더니 으리 오물 준허하스즉속키 기화(開化)하라 하옵시물 몽은하고(過化11)
 - 가이 뼈 닐비 제도가 되리라 하얏더니 빠인 폐가 바다갓치 곱퍼 도리컬 슈 업슬 슈를 엿지 헤아려 쓰리요(過化11)
 - 데군이 가르치스 진경 오천장을 박엿더니 그 후에 으돌 둘을 나아 종시하니라(過化20)
 - 그 소리가 들니리라 하야더니 그 밤에 길몽을 엿고(南宮10)
 - 데군 보훈을 정성으로 밋드려 힘빠 행하야더니 문각은 회시 장원하미(南宮10)
 - 과장의 시관이 손월봉으로 더부러 공을 장원의 비겨더니(南宮14)
 - 즉시 오백권을 인출하야 시주하고 비러더니 창질이 나오니(龜君14)

19세기 국어에서는 중세 국어와 같은 교체의 예는 보이지 않으나, 선어말 어미가 연결되는데, (16)의 예는 시상 선어말 어미 「-느-」 17) 「-더-」 「-리-」, 「-앗/엇-」 과의 결합 양상을 보인 것이다. (16 ㄱ)은 「-느/느-」가 혼용됨을 나타낸다. (16 ㄴ)의 예는 모음조화의 파괴로 인해 「-느-」가 「-너-」로 표기됨을 말해 준다. (16 ㄹ)은 과거를 뜻하는 선어말 어미가 붙음에도 영향을 주어 양성 모음인 어간 뒤에도 「-엇-」이 오는가 하면 그 형태 역시 같은 자료에서조차 「-앗/앗/야」으로 나타나고 있고 「ㅎ-」 다음에 이어질 때도 「-앗/엇」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모음조화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 /음가의 소실로 모음 체계에 큰 혼란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ㅎ-」와 「허-」가 병행되는데,¹⁸⁾ 이런 현상이 「ㅎ야-」에까지 영향을 미쳐 「ㅎ얏/ㅎ엏」이 혼용되어 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높임 표현의 선어말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 본다.

(17) ㄱ · 귀즈를 두게 ㅎ신니 이곳 동중서라(太 上1:2)

· ㅎ 첩의 나오신니 도서ㅎ여 벼슬과 돈을 주시되(太 上1:7)

· 한수 정후와 ㅎ 가지로 문우 두 데군이 되신니 신도로 설교ㅎ시미 중국의 양일ㅎ 신지라(南宮1)

17) 허웅(1981)은 「-느-」를 시체의 하나인 현실법으로 분석하고, 현실법은 '어떤 행동·상태가 방금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기술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느-」가 현대어의 「-느-」라고 한다.

이에 대해 김차균(1980)은 ① 15세기 국어에서 「-느-」는 형용사나 지정사 뒤에도 쓰였고, ② 「-느-」 뒤에는 「-앗/엇-」 「-겠-」 「-더-」 등의 시체 형태소가 쓰였고, ③ 시상 선어말과 결합할 때는 의미가 없으나, 「-느-」는 '동작, 과정, 운동' 등 동사가 가지고 있는 비상태성을 가진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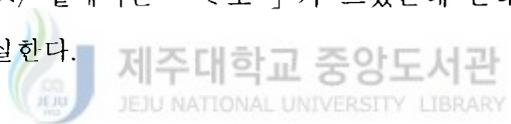
18) 같은 문헌에서조차 「하-」 「허-」 「ㅎ-」로 나타나고 있다.

· 만물을 리롭게 할 방편은 업시 다만 원허는 즈는 몸이 살지고 집이 윤택허미요
혹 귀명을 조성ㅎ며(三聖 拜心4)

- ㄴ · 은혜를 생각하여 갑홀 바를 아지 못호오니 이 쌀을 드러 첩을 삼아지라 호거늘 (太上3:6)
 - 소복이 형즈를 어덧스오니 녀녀티 마르소서(太上3:19)
 - 다만 관가의 구실홀 은즈 십여냥이 잇스오니 너일은 가져 고을의 보낼지니 가히 가져 오지 못호올스이다(太上3:22)
 - 첩의 집의 즈못 잇스오니 맛당이 빅머리를 드러 진어케 호리이다(太上4:9)
 - 일시의 괴격 발호여 죽엿스오니 원컨디 날노 빼 더솔호고(太上4:35)
 - 형이 직물을 앗기지 아니호시미 특별이 형을 위호여 그 반을 직회엿스오니 또 혼 족히 의식이 넉넉홀지라(太上4:43)
 - 불의에 이 날이 잇스오니 족히 스싱의 변치 아니호는 덕을 알니로다(太上4:51)

- ㄷ · 신은 뎡즈오니 빈천의 벅은 가히 잇지 못호고 조강의 처는 당의 느리지 아니한다 (太上4:28)

(17)의 예는 높임 표현의 선어말어미 「-시-」 「-사오/오-」 「-즈오-」 등과의 결합 양상을 보인 것이다. 「-스오/즈오」가 첨가되면 의도법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짙게 가미되어 보다 부드러운 말투의 서법이 된다. 중세 국어에서는 /ㄷ/, /ㅈ/, /ㅊ/ 밑에서는 「-즈오-」가 쓰였는데 근대 국어에 이르러서는 그 변별력을 상실한다.



다음은 선어말 어미들의 결합체를 보인 것이다.

- (18) · 내 세상 스름을 권호야 이 간절흔 교훈을 밧들게 호노니 늻으니를 내 집 늻으니 궂치 호고(關五8)
 - 스름의 즈식이 호로를 밧게 잇스면 부되…… 슬허호시느니…… 그 뜻을 잘 밧들면(南宮4)
 - 화를 느리오시리니 사름이 엇지 힘써 힝치 아니호리오(太上 大文解11)
 - 상이 도셔호사 청호는 디로 허호여 계시더니 닐기라 호는 사름이 급스 벼솔노 이셔 알외여 궂오디(太上2:28)

- 혼 슈결을 쓰시다가 쥬저호야 붓슬 나리오지 아니시더니(南宮11)
- 관대 현령호샤 군스를 도으사더니 이육고 군시 과연 디첩호지라(過化17)
- 너 슈한이 근본 스십이세러니……앗기지 아니호 타스로 오년 감슈호엿노라(敬惜6)
- 신이 어려서 환노의 모침호여 즈못 청신호 일흠이 잇습더니 용쥬 자스 낭위 탐심호여 너척의 형세를 밋고 신의 말을 아스려 호여 익미히 신을 죽엿기로(太上2:73)
- 공을 히호려 호여 이의 왓습더니 이제 공을 보니 성근호 장지라 츠마 공을 히치 못홀 지라(太上5:62)

접사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 ㄱ · 비록 효를 말호나 말이 이의 지나지 못홀시 이의 이 일을 뵈노니 극히 심각호고 극히 닥그라(關五4)
- ㄴ · 문창예군 사우를 그 짜히 세우니 스통마다 공의 부덕을 탄복호더니(南宮14)

(19 ㄱ)의 예는 「-이-」와의 결합을 보여 주며, (19 ㄴ)은 「-우-」와의 결합을 보여 준다.

(2) 「-면」



「-면」은 아직 到來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조건을 나타낸다.¹⁹⁾ 앞말과 뒷말의 관계는 '조건-결과'의 관계로 앞말은 전제가 되는 어떤 명제인 조건이며 뒷말은 전제된 조건 아래서 이루어진 결과라 볼 수 있다. 즉 후행절이 성립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절을 끈다고 보겠다.

19) 허웅(1981)은 '가정'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이승녕(1985)은 인과의 사실을 나타내는 단순가정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어미는 가정을 나타내는 어미라기보다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뒷말에 이르게 되는 조건을 나타내는 어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문헌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 본다.

- (20) · 스름이 능히 날과 갖치 마음을 두면 하늘이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南宮6)
- 향을 불스르고 높히 외우고 생각하면 그 복이 와서 림홀 거시오(關明6)
 - 형인이 이 경문을 츠면 길과 길의 안녕이 보전호고(關明7)
 - 네가 능히 쓰라 직키여 만물을 익기면 복이 도라가는 비 잇스미(關明22)
 - 쇠흥고 늘근 부모는 아들이 변시 슈족이라 면전의 잇지 아니면 슈족을 들고즈 호되 능히 못호며(南宮4)
 - 적이 스스로 사랑홀줄 아는 지면 오히려 금계호물 아더 (南宮13)
 - 으들을 구호면 으들을 엇고 슈를 구호면 슈를 어드며(三聖7)

(20)에서 보면 「-면」은 그 조건이 폐쇄된 가상 조건의 의미를 갖는다.

이 어미와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 본다.

- (21) ㄱ · 순 남군이 스모호신지 삼년에 잡슈시면 요를 국에 뵈웁고 안즈시면 요를 담에도 뵈웁단 말이라(南宮9)
- 집의 이 경문을 모시면 요괴로운 귀신이 화호여 췌글이 될거시오(關明6)
- ㄴ · 그 종이 머리를 조아 굴오더 이러툃 호오면 회시일지 지늘 거시니 두리건더 디시 그릇될가 호느이다(太1:3:19)
- ㄷ · 다만 안심물녀(安心物憂) 호오시면 너 맛당이 치료홀지니(太1:1:7)

(21 ㄱ)의 예는 높임 표현의 선어말 어미 「-시-」와의 결합을 보여 주며, (21 ㄴ)은 겸양 표현의 선어말 「-오-」와 결합됨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이 어미와 접사와의 결합 양상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2) · 만일 이 마음을 속이면 이는 신명을 속이리라(三聖4)
 · 이것을 바리고 말을 세우면 근본 업는 말이 되고(南宮3)

(3) 「-르시/르세」

「-르시/르세」는 후행절에 대한 상황의 배경을 나타내거나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다. 뒷말의 결과는 「-르시」로 이끌어지는 부분이 요인으로 작용함을 나타낸다. 중세 국어에서는 「-르씨」로 표기되었던 것인데 19세기에는 문법적인 의식의 발달로 「-르시/르세」로 표기되었다.

「-르시」는 현대말로 '-하기로, -하므로'의 뜻으로 해석되며, 그 의미나 쓰임이 「-거늘」과 유사한 점이 많다. 중세 국어에 쓰인 예를 들어 보겠다.

- 노르셋 바오리실씨 물 우회 니서터시나 二軍鞫手썸 깃그니이다(龍歌44)
- 軍命엿 바오리언늘 물 겨퇴 엿마ᄃ시니(龍歌44)

문헌을 통해 그 의미를 고찰해 본다.

- (23) ㄱ · 진실노 경윤이 저근 거슬 앞시 세번 췌(茅)집에 뵈이미(關明19)
 · 장춧 솔을 식집 보니려 홀시 혼 아희 종을 쏘을 쥬엇더니(太1:14)
 · 사람이 청흙물 인하여 설야의 갈시 가인(家人)이 혹 말니거늘(太1:24)
 · 설야의 이십니를 헝하여 오랑키를 칠시 기 친 종 낙 판박인을 얻으니(太1:157)
- ㄴ · 데군 사당을 지날시 암축하고 괴도하야더니(南宮9)
 · 장춧 헝지소의 회시를 보라갈시 길이 관창 싸홀 지나는지라(南宮10)
 · 도적을 잡을시 혼 녀즈를 엿으니(太1:15)
 · 그후 정시의 나아가 글을 지을세 홀연 혼 조각 조희 앞에 나려지며(太1:15)
 · 이미 일흠이 천조의 올라실세 상제 특별이 숨귀(紀)기슈를 늘이시고(太1:11)
 · 죄인을 드스릴시 죄의 경중을 의논티 아니하고 모든 형벌을 마구 부리더니(太1:2:15)

- 과만^{호여} 도라^갈신 그 밤 ^꿈의 슈^빅 여인이 머리도 ^{찌여}지고 다리도 상^혹도 팔도 부러져 ^흔나도 성^흔지 업^는지라(太上2:15)
- 모든 귀^신으로 더부러 ^흔 가지로 양가의 작^난홀^신 양^탁의게 드^라들어 드^타아 그 고기^를 너^홀며 슈^발을 피^트으며(太上2:19)
- 홀^일 업^서 너^산구^턴 도^관의 나^아가 지 울^너 괴^도홀^신 초^야의 보^니 소^경이 곳 ^것히 잇^는지라(太上2:20)
- 밋 ^벼술을 ^올마 천^주 짜^흐로 갈^신 성^빛그로 나^가니 그 귀^신이 또^흔 뒤^를 쓰^로며 물^너가지 아^니호^더니(太上2:21)

ㄷ · 그후 원^내 회^퇴 밋은 죄^로 옥의 느^리워 추^문홀^신 즐^겨 항^복지 아^니호^거놀(太上2:14)

(23 ㄱ)은 뒷말에 대한 이유로 “~하므로”의 뜻을 나타내며, (23 ㄴ) 설명의 계속을, (23 ㄷ) 뒷말에 대한 역접을 나타낸다.

(4) 「-아/어」

원인, 조건, 수단, 상황, 설명의 계속 등 主動詞의 동작보다 선행한 동작의 양태를 나타내는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보조사 「-사/샤」 「-셔」 「-도」와 그 연결체가 올 수 있다. [-아/어]에 [-야]가 붙을 때 제약법으로서의 뜻이 더욱 분명해진다.

문헌을 통해 이 어미의 의미를 살펴 본다.

- (24) ㄱ · 동^영이 집이 가^난호^여 부^상을 당^호리 당^스홀 길^이 업^는지라(太上1:2)
- 몸^을 팔^안 영^당호고 사^름의 고^공이 되^엿더니(太上1:6)
 - 집^을 청^호여 두^어번 나^아갓^더니(太上1:6)
 - 타^일의 장^이 몸^이 곤^호여 상^의 비^겨 도^울더니(太上1:7)
 - 네 ^의술을 ^헝호^여 공^이 만^코 상^제 아^름다^이 너^기샤 너^를 ^흔 벼^술과 돈 오^만냥^을

주시느니라(太上1:7)

- 주인이 무즈흔여 첩잉이 무슈흔되 종시 아들이 업는지라(太上1:8)
- 첩이 가면 어린 으히 젓슬 닐허 죽기 반듯흔지라(太上1:19)
- 문대의 글을 기간흔기를 피흐나 전질이 호대흔야 거연이 니루지 못흐므로(南宮2)
- 상대 아름다이 녀이스 삼터를 창성케 기록흐시미니라(南宮12)

ㄴ · 너 나히 스십이 차지 못흐연 엇지 악흔 허물이 이긋치 만흐리오(太上2:22)

ㄷ · 곳세고 강악흔야 어지지 아니흐며(太上 大文解4)

ㄹ · 봄의 사냥질흐며 북을 향흔야 몹슬 말흐기와 육흐기흐며(太上 大文解10)

- 음즐문 권효문 두 대문과 령험기 약간축을 기록흔야 합흔야 혼 편을 민드러 뼈(南宮2)
- 씨야 그 씨홀 파니 과연 십오종의 곡식이 잇고(太上1:4)
- 기록흔야 합흔야 혼 편을 민드러 뼈(南宮2)
- 세상의 공형흔야 넘는 니로 혼야곰 다 공경흐고(南宮2)
- 데군의 화상을 혼 본을 뵈셔 도라 왔더니(南宮2)
- 낭두스를 보고 죽연 못고 도라와 울거늘(南宮6)

ㄹ · 복심이 구흐미 잇셔도 날우지 못흐야 서로 마음의 깃거흐고 서로 회포의 슬허흐시느니라(南宮4)

- 심흉이 경박흔야 원기를 상흐미 되니 가히 두렵지 아니흐라(南宮13)

ㅂ · 의식을 조비흔야 길에 귀한흔 니를 구제흐며(南宮7)

- 관곽을 시쥬흔야 죽엄을 드러나게 말며(南宮7)
- 약지를 쥬어 길고를 건지며(南宮7)

ㅅ · 어려서부터 데훈을 꾀복흔야 날마다 문창효경을 가져 외오더니(南宮13)

(24 ㄱ)은 원인을, (24 ㄴ)은 후행절에 대한 역접을, (24 ㄷ)은 뒷말과 상반

됨을, (24 ㄹ)은 계기적 상황을, (24 ㄴ)은 뒷말에 대한 원인을, (24 ㄷ)은 뒷말에 대한 조건을, (24 ㄹ)은 상황의 지속을 나타낸다.

(25) ㄱ · 이것을 보와 경계를 삼아(南宮13)

- 호승이 잇서 상 보와 고평오더(三聖11)
- 키여 도라와 봉양하고 또 꿈의 신명이 니르되(太上1:3)
- 명년의 과연 아들 평이로 나한 장원급제하고(太上1:20)
- 급히 주식과 지전을 만히 갖초와 주라 혼디(太上2:18)

ㄴ · 그 어미를 불너 맞져 보너엿더니(太上1:5)

- 업드려 오린 후 니러나 말하되 맛춤 텃문의 니르러 명춘장원방을 보느라 더되엿다
하거놀(太上1:9)
- 벼슬이 후빅의 니르러 더더로 습봉하니라(太上1:9)

ㄷ · 한 글 쓴 조희를 니여 보니(太上1:8)

- 둥니 사름 손개 잇션 병들어 오러 낫지 못하미(太上1:6)
- 조각 조희를 가적 조니불가라 네 즈를 써 불의 스로기물(太上1:5)

ㄹ · 하남의 봉현관이 되야 선치호므로 포평의 데일이 되야 어스에 빠히니 라(南宮15)

- 나히 삼십여세의 조부 현몽하야 날너 고평오더(南宮6)
- 웅당 진사하야 벼슬이 소보(少保)의 니르러 치스하고(南宮12)

ㄹ · 송괴 옷션 고평오더(南宮6)

- 스름의 도리의 붓그러오미 업션 가히 텃디간에서 올지라(三聖3)

ㅂ · 후의 장원급제하야 강도왕 티부 벼슬을 하니라(太上1:2)

- 분연하야 왓 니 엿지 급흔 씨물 인하야 남의 처녀를 더러이리오 하고(太上1:5)
- 일노 조춘 글싱각이 신귀하야 장원급제하니라(太上1:5)
- 그 체 붓그리며 감격하야 물너가니라(太上1:7)
- 오락지 아니하야 동궁의 병환이 겨시미(太上1:7)

· 도셔호연 벼슬과 돈을 주시디(太上1:7)

ㅅ · 은이 못 가운데 나아간 하늘 띄 빌며 울기를 쓰치지 아니호더니(太上1:3)

· 그 후의 정시의 나아간 글을 지을세(太上1:5)

(25 ㄱ, ㄴ)은 앞의 어간에 따른 어미 「-아/어」의 교체를 나타내며, (25 ㄷ, ㄹ)은 「이-」, /j/, /ㅎ-/뒤에서 「-아/어」는 「-야/여」가 되는 예이다. (25 ㅁ)은 (25 ㄷ, ㄹ)이 나타나는 조건이 아닌 곳에서도 「-야/여」가 나타나는 예외로 보인다. (25 ㅂ)은 /ㅎ-/뒤에서 「-아」는 「-야」가 되어야 하나 /, /음의 소실로 인해 /ㅎ/와 /허/가 병행되는 현상이 ‘호야’에까지 미쳐 ‘호여’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현대 국어에 있어 “여” 불규칙을 낳는 원인으로 작용되었다고 생각된다. (25 ㅅ)의 예에서는 현대 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는 어미 「-아」가 탈락되어 쓰이고 있다.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 본다.

- (26) ㄱ · 상제 비턴더신을 보너샤 날마다 그 정성을 슬피시고(太上1:1)
· 이에 칠즈삼녀를 두게 호샤 다 관작을 더으시고(太上 人文解1)
· 상제 어엿비 너기샤 적녀를 나리워 그 처를 삼으시고(太上1:2)
· 징이 약을 진어호샤 혼첩의 나오시니(太上1:7)
· 상이 크게 사랑호샤 거동호여 가는 곳마다 반드시 가지고 가시더니(太上1:3:2)

- ㄴ · 메군이 현령호스 호가 호시니(南宮1)
· 메군이 문권 맛튼 동즈를 도라보스 명호야 터원(太原) 선비칙을 스출호야(南宮12)
· 착호고 약혼 것과 습기고 드러너를 다 괴록호스 미양 다다리 그 몸놀이면 하늘에 올라가 알외고(龍君1)
· 상메계오서 진로호스 임의 슈십년 전의 모든 마왕을 명호스 세상에 내려 질병을 퍼며 병난을 일으키라 호시니(過化10)

· 턱즈계오서 금스천을 주오스 또한 묘우를 성동문 받게 세우고(過化19)

ㄷ · 신명이 민망이 너기스 막음을 열어 죄산 공과을 베푸러 미련호고 완악호를 인도호고(寵君4)

(26 ㄱ)의 예에서 처럼 선어말 어미가 「-시-」 「-습-」이 올 경우 「-샤」가 된다. (26 ㄴ)의 「스」는 /、/음의 소실로 1음절이 /아/로 표기되는 과정에서 /、/가 아닌 것도 /아/로 표기되고 /아/도 /、/로 표기되는 그 역행적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접사와의 결합 양상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27) ㄱ · 벼순치 괴희 동에 음즐문 만 장 박연 전호야더니(南宮16)

· 이에 관을 삭연 그 전호를 날니호고(寵君2)

· 맛당이 막음을 두어 쓰고 삭의연 홀여 전호기를 날니호고(寵君5)

ㄴ · 부귀와 공명을 다 능히 일우어 무릇 비논비 잇스면 여의히 어더(三聖7)

ㄷ · 나히 습식늑의 홀연 중헌 병의 결의연 죽엇다가 다시 씨연(寵君23)

ㄹ · 지금 강한우의 병난의 짓발피연 가장 괴로오니(過化11)

ㅁ · 측간의도 씨러쳐 바리느니(敬惜1)

(27 ㄱ, ㄴ)에서 보면 사동 접사 「-이-」 「-우-」와의 결합 양상을, (27 ㄷ, ㄹ)에서는 피동 접사 「-이-」 「-히-」와의 결합을, (27 ㅁ)에서는 강세 접사 「-치-」와의 결합 양상을 볼 수 있다.

「-아」에 비해 「-아서/어서」는 어떤 일의 결과나 상태의 지속을 보이는 연결 어미다. 선행절은 “원인”을, 후행절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원인-결과 구조를 갖지 않을 경우 非文이 형성된다.

「-아서/어서」의 의미를 살펴 본다.

(28) ㄱ · 관원과 아전과 스티부와 빅성드리 덕체 윤귀를 거스리고 턴리를 어긋여져서 스스로 턴디에 쓴너진지라(過化10)

- ㄴ · 벼슬이 지상의 니르니 문의 부뵤 스라션 봉작을 받호니라(太1:1:20)
- 절머션 산중에 들어 공부호더니(太上1:21)
- 명나라 나눈이 점어션 뜻을 그드드아 성현의 도를 힘쁘더니(太1:3:19)

- ㄷ · 용우흔 스름을 잇글고 달너여 하늘에 오른다고 일커러션 지물을 거두고(過化6)
- 빅일의 방져호고 도라셔션 모히호며(過化6)

- ㄹ · 착헌 마음이니 보음이 나타나고 나타나션 고금을 지나는 이 기암이을 구하며 비암을 무드미 어진거시 만물에 밋쳤스니(麗君36)
- 몇기 글자롤 능히 알면 모로논 재 저마다 와션 가르쳐 달나 호야(敬惜4)

(28 ㄱ)은 뒷말에 대한 이유, (28 ㄴ)은 뒷말에 이르기까지 상황의 지속을, (28 ㄷ)은 뒷말에 대한 역접, (28 ㄹ)은 뒷말보다 앞선 상황을 나타낸다.

- (29) ㄱ · 죄인이 미양 승복지 아니호니 무슨 법을 호연야 뇨홀고 호니(太1:2:12)
- 그운이 화호연야 능히 만물을 양육한다 호거늘(太上2:51)
 - 더져 글이라 호는 거슨 믿음에 화호고 괴운이 평호연야 잘 홀 거시어늘(太1:3:25)
 - 싯기빈 거시라야 살쨌 가히 먹업죽 호고(太上5:51)
 - 모든 이갓튼 복은 오직 착호야야 가히 이룰지라(三聖7)

· 평일의 마음 두고 헝하는 일을 다 신명케 질정헝여나 거위³침죄 하미 업스리라(龜君24)

나 · 측효와 절의 등 스를 극진이 헝야샤 바야흐로 스름의 도리의 붓그러오미 업서 가히 텃디간에 서(立) 올지라(過化3)

· 귀³호오미 측효와 절의 등 스를 극진이 헝야샤 바야흐로 스름의 도리의 붓그러오미 업서 가히 텃디간에서 올지라(三聖3)

(29)의 예는 「-아/어」에 보조사 「-야」가 붙어 쓰이는 것으로 이 때 제약법으로서의 뜻이 더욱 분명해진다. 이는 중세 국어에서는 강제 첨사 「-샤」가 연결하여 쓰였던 것으로 /Δ/의 소실로 인하여 「-야」가 쓰인 것이다.

(5) 「-ㄴ터/ㄴ되」 20)

「-ㄴ터」는 설명, 이유, 원인을 보이는 어미다.

중세국어의 문헌 자료에서는 「-ㄴ대」가 보편적이고 「-ㄴ터」는 드물었으나²¹⁾ 그 반대적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ㄴ/음의 소실로 인해 /애/와 /인/가 혼용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빚어지는 현상으로 보인다.



문헌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 보겠다.

(30) 그 · 불의에 지물을 취호는 자는 비컨³디 누포로 요기³호고 짐독³호 슬노 희갈호는 것 곳 회여(太上 人文解10)

· 곳치 자던 사름이 듯고 고이³히 녀여 그 말을 힐문호디 답³호되 일죽 말호미 업다 호더니(太上:5:26)

20) 김태곤(1987)은 이 어미는 그 말이 나타나는 뜻을 당연한 사실로서 또는 기대에 어긋나는 원인으로, 뒤엣말로 넘겨 주는 기능을 한다고 지적한다.

21) 허웅,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1980, p.540.

- 그 어미 연고를 무른던 더왈 아회 드르니 낭두스를 보는 사람은 반드시 죽난다 ㅎ 더니(南宮6)
- 데군이 단좌ㅎ야 계신던 텃하성황(토지신)이 향시방칙(시골에서 과거보는 방목책)을 보너거놀(南宮11)
- 덕헌 집의 인후ㅎ 즈식을 사실ㅎ야 용예 진전ㅎ던 데군이 굴오사터(南宮11)
- 용예 고두사죄ㅎ던 데군이 또 굴오사터(南宮12)

- ㄴ · 이 녀적 불효ㅎ 스름이 안닌던 엇지ㅎ야 하날 죄을 맞논고(龜君14)
- 창조민이 집의 잇는던 포졸이 그 문의 이른즉……금갑신 둘이 막아 드러가지 못ㅎ게 ㅎ니(龜君20)
- 스홀 장마만 바라는던 엇지 열홀이 임의 지리ㅎ던데 넘질 줄 아랏스랴(龜君30)

- ㄷ · 는는 셔쥬 피현 ㅅ 스름인던 성은 육이요 일흠은 전신일너니(龜君10)

(30 ㄱ)은 계기적 사건의 진술을 나타내고, (30 ㄴ)은 반대의 상황 전개됨을 나타낸다. 그리고 「-ㄴ되」의 표기는 /ㄴ/음의 소실로 인해 /애/와 /의/, /애/와 /의/가 혼용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ㄴ되/ㄴ되」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기능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선어말 어미 「-오/우」 「-좁/오-」 「-시-」 「-는/는-」 「-거-」을 앞세운다. (30 ㄷ)은 서술격 조사와 결합해서 한 어미처럼 쓰임을 보여 준다.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 본다.

- (31) ㄱ · 장경이 복디고두 ㅎ운던 데군이 무러 굴오사터(南宮17)
- ㄴ · 용예 쥬길의 장원ㅎ는 연고를 못즈은던 데군이 굴오사터(南宮12)
- ㄷ · 데군이 단좌ㅎ야 계신던 텃하성황이 향시방칙을 보너거놀(南宮11)

- ㄹ · 암학 가운데로 피하고져 하나 쳐어하건디 너가 능히 가량이면 도적도 또한 능히 같지라(過化13)
- 만일 너 말을 맞지 안니 홀진던 청컨디 황대경을 가져보라(寵君1)
- 네 스스로 헤아리건디 가히 급제하염즉 하며 또 가히 아들을 나흠즉 하나 하거늘 (太1:2:50)
- 조식 낮키로 의논컨디 빅디를 누릴 덕이 있는 자는 일정빅디의 조손이 잇서 집을 보전홀거시오(太1:2:51)
- 너 뜻하건디 중품 스릅니 호로 착한 거슬 홀 막음이 유연이 스스로 느면(寵君5)

(31 가)은 의도의 선어말 어미 「-오/우-」와의 결합을, (31 나)은 겸양 선어말 어미 「-조오-」와의 결합을, (31 다)은 높임 선어말 어미 「-시-」와의 결합을, (31 리)은 「-거-」²²⁾와의 결합 양상을 보여 준다.

(32) 가 · 제나라이 크게 흉년이 드릿는던 겸오란 사람이 먹을 거슬 길에다가 하여 노코 쥬린 사람을 기다려 메기더니(關明30)

- 나 · 네 전성의 날도 더부리 이웃하야 스는디 네 성은 강이요 일흠은 원진이라(寵君10)
 - 안히 물의 빠져 죽어는디 내가 네 명망과 형세을 두려워 감이 고관발장을 못하코 다만 장스지널 부비만 달는디(寵君10)
 - 영제후의 종직 되얏는디 너 집이 큰는디 업스나……이제 운역을 나리실 거시니(寵君17)

(32)의 예는 시상 선어말 어미 결합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현재 시상의 선어말 어미 「-는-」였는데 근대에 와선 모음으로 끝난 어간 뒤에는 「-니-」이, 자음으로 끝난 어간 뒤에는 「-는-」으로 변화였다. 그러

22) 임흥빈(1977)은 「-거-」는 현대 국어에 이르러서는 「-거든」 「-거늘」 「-거나」 「-거나」 「-거니와」 「-건마는」 등에 한 어미로서 굳어진 형태로만 볼 수 있다. 「-거-」는 '可觀性, 外面性, 客觀性' 등 외면적인 사실을 문제삼는 대상성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후행절이 그와 반대될 때 非文이 된다고 한다.

나 여전히 「-는-」와 「-는-」이 혼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6) 「-르진디/르진던」

「-르진디/르진던」은 「-르것 같으면」의 뜻으로 假定法을 나타내는 어미로 이 어미는 미래의 사실에 대한 조건을 나타낸다. 그래서 화자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게 된다. 후행절은 반문(의문), 당위, 단정, 명령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 후행절의 양상을 살펴 보겠다. 특수 조사 /ㄴ/과 통합된 형태 「-르진던」도 같은 기능으로 쓰였으나 한층 힘주어 말할 때 쓰인 것으로 보인다. 「-르진던」 「-르썸뎨」으로 쓰이던 것이 구개음화되어 「-르진던」으로 나타난 것이다.

- 이대 코져 홀뎨뎨(圓序80)
- 시혹 그러티 몰홀뎨뎨 네를 보러……거릿기리니(金 序2:12)
- 이 길헤 다드로러 홀뎨뎨 반드기 구의에 니르롤띠니(金剛 序9)

「-르썸대」도 보인다.

- 男兒 | 되어 돈닐썸대 내 조상 명성을 호여 버리디 말고(老諺 RF43)

문헌에 나타난 「-르진디/르진던」의 의미를 살펴 본다.

- (33) ㄱ · 일노 벼 불진던 엇지 집에 모시고 집에서 빌지 아니호리요(龍 卷2)
- 한 사람의 죄로 일문이 죄를 बाट을진던 소마우의 착함으로 상퇴의 벌을 받으며 뉴하혜의 성인으로 도척의 죄의 연좌홀지니 엇지 슬프지 아니리잇가(太 上:2:63)
 - 네 만일 우리 아기를 히호여 니를 취홀진던 신명이 붉으시니 장춧 멸문을 면호라(太 上:4:56)
 - 그 두 식림의 지조를 스랑호여 죽음을 앗길진던 엇지 보니여 멀니 드라누게 아니

호노뇨(太1:5:8)

· 그 뜻을 잘 밧들진던 능히 경직인들 좌우에 써날소냐(南宮4)

ㄴ · 북밧출 널니고즈 홀진던 모로미 심지를 빙즈홀지라(三聖11)

· 네 만일 이 약으로 우리 쥬보롤 먹여 죽일진던 니 당당이 은금을 만히 쥬어 더공
을 갑흐리라(太1:5:26)

ㄷ · 이제 만일 돈을 드려 여슈히 갑홀진던 니 쏘흔 밧당이 그 죄롤 스흐리라(太2:38)

· 송과 이의 장원홀진던 그 아러 되지 아니른 어인 말인고(太1:5:42)

· 슝롬의 자식된 지 그 뜻을 잘 밧들진던 능히 경직인들 좌우에 써날소냐(南宮4)

ㄹ · 겁운을 멀니하고자 홀진던 스스로 죠흔 방문이 잇스되 (過化12)

· 데군계오셔 십만인명을 살니고져 흐실진던 이 살이 도적의 인후를 썬이게 흐쇼셔
(過化17)

그 후행절이 (33 가)은 반분(의문)을, (33 나)은 당위의 뜻을, (33 다)은 명령의 뜻을, (33 라)은 조건의 뜻을 나타낸다.

(7) 「-관타」



「-관타」 원인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서 의문문의 전제를 나타낸다. 앞에는 반드시 의문사가 오는 것이 특색이다. 이는 중세 국어에 많이 쓰였던 것인데 여기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의 용례가 있을 뿐이다.

(34) · 병식의 무슨 도술을 어덧관타 닐홈이 선부의 올낫노뇨(太1:3:50)

현대 국어에서는 「-관타」로 표기되는데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내가 뭐관타 그리 뽏내냐.

(8) 「-든」 23)

「-든」은 가정적 조건, 반응, 상황 설명, 가정을 나타내며, 반드시 선어말어미 「-거-」 「-아/어-」를 앞세운다. 중세 국어에서는 「-거든」에서 /ㄱ/의 탈락은 선어말어미 「-리-」, /j/, /ㄹ/ 밑에서 이루어졌다.

문헌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 본다.

(35) ㄱ · 남의게 밧거든 놀나옴²치 호며(太上 大文解3)

· 각박한 아전의 수단으로 경한 죄를 중히 지우거든 너 힘써 가벼얍게 호오미(太上 2:5)

ㄴ · 만일 디스물 넘우거든 너를 봉호여 탄하광명 디 원슈물 호이리라(太上3:3)

ㄷ · 이제 화를 도망하고 피호려 호여도 엇지 못호려든 무슨 복을 빌어 엇으리요(太上 3:16)

· 길의 지나는 지 보아도 오히려 불인지심이 잇스려든 호물며 형제야 닐너 무엇호리요(太上3:26)

ㄹ · 이의 죄를 어드미 김헛시미 장춍 권벌이 잇스려든 오히려 잠방을 비라는다 네 엇지 네 날을 생각지 못호는노(太上3:33)

· 이제 그 문세 잇더라 호여도 맛당이 불질너 업시호려든 오히려 츠즈려 호는노(太上4:6)

19세기에서는 「-리-」, /j/ 뒤에서만 /ㄱ/탈락이 이루어졌는데, 「-리-」 뒤에서는 「-어-」는 「-리-」와 축약되어 (35 ㄷ, ㄴ)과 같이 「-려-」로

23) 최현배(1955)는 비교에 분류한다.

· 중학생이 알거든, 하물며 고등학생이 모르겠느냐

표기되었다. 그리고 그 후행절은 조건, 명령, 의문, 역접, 당위 등을 내포하게 된다. (35 가)은 명령의 뜻을 나타내며, (35 나)은 의지의 뜻을 나타낸다. (35 다)은 설의의 뜻을, (35 리)은 반의의 뜻을 나타내게 된다.

(36) 가 · 그 날이 비록 넘우든 못하였으나 일느 인하여 장원을 밧고(太1:3:28)

- 착한 스롭이여든 친근이 하야 덕하형을 몸과 마음의 돕고(聖13)
- 청전 삼천금이 아니여든 허락지 말나(太1:4:57)
- 올흔 도여든 나아가고 그른 도여든 물너나게 하느니(太上 大文解2)
- 너 성은 니가요 강가 안니여든 널노 더부러 무슴 원슈가 잇슬리요(龍君10)
- 지력이 부족흔 자여든 혼가지 일을 마타 담착하야 권하고(敬惜8)

나 · 착한 스롭이여든 친근이 하야 덕하형을 몸과 마음의 돕고(太上 大文解8)

· 착한 스롭이여든 친근이 하야 덕하형을 몸과 마음의 돕고(南宮8)

다 · 능히 글즈를 알거든 못당히 글즈를 공경하여야 바야호로 장리의 도로혀 글즈를 아
는 지양을 밧지 아니홀 거시오(敬惜5)

(36 가)의 예에서처럼 지정사나 /j/ 뒤에서는 모음 충돌을 피하기 위해 /j/ 이 첨가되어 「-여든」의 형태가 나타나야 하는데 (36 나)처럼 「-어든」의 형태도 보이고 있다. (36 다)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ㄱ/은 /j/ 뒤에 시는 탈락하나 /ㄹ/뒤에서는 탈락하지 않고 있다.

서상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37) 병환이 계시거든 의원의 약을 반다시 스스로 더리고 곳 모름족이 맛보아 지너여(過)
어버이 압히 드리며(關明27)

(9) 「-놀/-늘」

조건. 상황을 나타내는 어미로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고 예스러운 표현에서만 보인다. 「-놀/늘」은 어간에 직접 붙어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선어말 어미 「-거(어,나)-」 「-아/어」를 앞세워 쓰이게 되면서 하나의 어미로 굳어져 쓰이게 된다. 이렇게 붙 때는 기본형을 「-거놀」로 보는 것도 타당하다 하겠다.²⁴⁾ 그래서 /이/나 /르/ 뒤에서 「-어놀」이 된다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놀/늘」은 혼용되었는데, 「-늘」의 형태는 중세 국어에서도 쓰였다.

- 四海를 년글 주리여 ㄹ르매 비 업거늘 얼우시고 쫘 노가사니(龍歌20)
- 아버 오거늘 보고(月釋 17:19)

19세기 문헌에서 이 어미가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지 살펴 보겠다.

- (38) 가 · 증조모 왕시(氏) 늙동의 근치를 먹고져 호거늘 은이 못 가운데 나아가 하늘의 빌며(太土1:3)
- 그치라 호는 듯 호거늘 눈물을 거두고 싹흠 보니(太土1:3)
 - 체읍호기를 미이 슬허호거늘 공이 고이히 너겨 그 연교를 모르니(太土1:14)
 - 꾸지즈디 움작이지 아니코늘 명하여 쓰라호니 그거시 뛰여 전당의 드러가니(太土1:46)
- 나 · 도보는 원훈더신이어늘 어린 아희 궤방하기를 방즈히 호니 능히 왜 업스라(太土1:48)
- 흥군 호는 도리는 빅성을 안정케 흠이어늘 엇지 차마 만히 죽여 공을 삼으며(太土1:57)
 - 기실은 죽을 죄 아니어늘 구양위 스죄로 알외여 죽이니(太土2:20)

24) 허웅(1981)에서는 기본형을 「-어놀」로 잡고 있다.

- 선왕의 형벌 업시하는 뜻을 본받을 거시^어늘 이제 너는 사람을 불상이 넘어는 믿음으로 뼈 경계치 아니하니(太1:2:35)
- 밍즈의 말씀이 그르지 아니^키늘 네 스스로 그릇 희석^하엿도다(太1:2:50)
- 물이 끓으면 고기 얹다 호거늘 나는 그러티 아니^하여 정결^하기^를 도하^하며(太1:2:51)

(38 가)은 후행절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고, (38 나)은 후행절에 대한 반대적 상황을 나타낸다.

(39) 가 · 혼 주린 지 오^거늘 검외 왼손으로 먹을 거슬 받들고(關明30)

나 · 어른은 문져 헝하고 어리니는 뒤^히 헝흔 뿔흔 법이오 뿔흔 도리^어늘 엇지^하야 급세의는 당유가 법이 업^는고(關五8)

다 · 조군의 설만^하미^어늘 스펀이 아지 못^하터니(寵君6)

· 구복(口腹)지계는 잠간동안 즐기^미어^늘 화복이 서로 열키^어엿도다(太1:5:33)

라 · 잔인한 마음을 싱츠키 못^하 할 장분^어어^늘 나는 그러티 아니^하여 능히 너^거슬 너^여 사람을 구제^티 못^하며(太1:2:51)

· 전답 구실이 혼 니랑의 두 푼 삼 니 질^호 뵙 호는 법^어어^늘 너 도입후의 그 슈를 감^하여 혼 푼 스 리 늑 호 뵙으로 정^하엿더니(太1:2:54)

· 뵙성의 인심을 어^들거^서어^늘 이제 민심이 이 곳호니 네 정^스를 가^히 알^니로다(太1:2:77)

· 더져 큰 그르^스 몸의 감^초미 넛 사람의 중^히 너^기난 비어^늘 이제 그^터난 아^름든 온 날^흠을 일^죽이 어^덧시^니 반^{드시} 희로^움이 잇^슬지^라(太1:3:23)

마 · 예외) 맛^춤너 착^한 벗^지 잇^서 조^군령^침을 가^져 뵙어^늘 보고 심^히 것^거하^야(寵君2)

바 · 곤^화 눈을 감^{았다}가 편^가만의 필^연을 찾어^늘 무^엇세 쓰^기을 무^르디(寵君13)

· 우짓고 그 쌈을 치거늘 쌈을 씨미 쌈이 부어 큰 종괴되야 슈일만의 크기 잔
만^하야(龜君16)

· 부억 우흐셔 습써늘 형이 경계호더 뜻다 아니호드니(龜君23)

(39 ㄱ)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 그렇지 않은 예도 나타나나, 어간 「오-」 다음에 「-거-」가 오지 않고 「-나-」가 나타나는데,²⁵⁾ 19세기 국어에서는 그런 상보적 분포는 보이지 않는다. (39 ㄴ)의 예는 체언 뒤에 지정사가 생략된 채 바로 어미가 이어지고 있는 특이성을 보여 준다. (39 ㄷ)의 예에서 처럼 지정사 「이-」 뒤에서/ㄱ이 탈락하고 hiatus 회피 현상으로 半母音 /j/가 개입하여 「-여늘」이 된다. 그러나 (39 ㄹ)의 예에서 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쓰인다.

다음에서는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40) ㄱ · 순 입군은 효호시거늘 요 님군이 입군 위를 전호시고(關明28)

· 요 님군이 몰호시거늘 순 님군이 스모호신지 삼년에 잡슈시면 요를 국에 뵈옵고
(南宮8)



ㄴ · 계목의 굴오더 단개 적이라 호야거늘 어러 보니 음즐문이라(南宮16)

중세 국어에 있어서 「-거늘」 사이에 「-시-」가 결합할 경우 시상 선어말 어미의 결합 순위에 따라 「-거시늘」²⁶⁾이 되나 「-시거늘」이 나타나 「-거늘」이 한 어미처럼 굳어지는 변화를 보였는데²⁷⁾ 19세기에 와서 前者가 보이

25) · 아비 오거늘 보고(月釋 17:19)

· 四海人 틀 이여 오나늘 마리에 붓습고(天江曲 上, 其 57)

26) · 그저과 夫人이 나모 아래 잇거시늘 네 우므리 나니(月釋 2:42)

· 羅震이 굴외어시늘 다시 설범호시니(天江曲 上, 其 146)

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변화가 완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 변화에서도 나타나듯이 「-거늘」이 점차 한 어미처럼 굳어져 쓰이게 되는 요인이 촉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 시상 선어말 어미는 「-야/앗/엇」이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

(10) 「-미」

「-미」는 원인과 조건, 설명을 나타내는 어미로 「-앗/엇-」, 「-시-」, 「-오」를 앞세울 수 있는데, 19세기에는 대부분 「-미」로 표기되어 나타났다.²⁸⁾ 안병희·이광호²⁹⁾는 이 어미를 동명사 어미 /ㅁ/에 처격 조사 /애/가 결합된 것으로 보았다.

(41) · 정일호야 극진케 호면 가히 뼈 화육호의 춤찬홀지라(南宮3)

19세기 문헌을 통해 「-미/매」의 의미를 살펴 보겠다.

(42) · 무엇이든 무엇이든 무엇이든 크면 괴를 빼앗고 적으면 산을 빼앗느니(太上 大文解1)
· 사람이 법의 길니면 마치 못호여 가도며(太上 238)
· 하늘은 높고 쓰은 다즈매 일흔과 위과 임의 정호미오(關五5)
· 명을 바다 변방의 나아가매 날니 방낙을 싱각호고(關五6)

· 무엇이든 잘 호는 님을 부민 수수로 잘흔 것긔지 즐거호며(太上 大文解2)

27) 그 뼈 大會 부테 壽命劫數 長遠이 이 곁흔돌 니락시거늘 들좁고(月釋 17:23)

28) 15세기에는 「-매」로만 표기되었다.

· 患難하매 使安히 사디 문호노라(杜初8:43)

29) 안병희·이광호, 앞의 책, p.251.

- ㄷ · 은혜물 베풀민 감기물 기다리지 말며(太上 大文解3)
- 시거술 엮으민 넷거술 니즈며(太上 大文解7)
- 인하여 고적을 보으민 선인을 심각하여 슬프물 씨뎛지 못호올소이다(太上1:15)

- ㄹ · 부상을 당호민 당스흔 길이 업는지라(太上1:2)
- 동궁의 병환이 거시민 징의 약을 진어호샤 혼 첩의 나오시니(太上1:7)

(42 ㄱ)은 원인, (42 ㄴ)은 조건, (42 ㄷ)은 반대적 상황의 전개됨을 나타내며, (42 ㄹ)은 설명의 뜻을 나타낸다.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 보겠다.

(43) ㄱ · 우진희는……남의 지물을 속여 싱익을 스부민 남의 지물진 거시 쉬업더니(繼君15)

- ㄴ · 불행이 기세(死) 호시민 집이 멀어 더라갈 길이 업는지라(太 1:1:17)
- 성에게서 밤시도록 춘츄를 일그시민 초가 부족호셔 형슈계신 방 담벼락을 갈노 썬어 초불빛출 빗치게(關明17)
- 너 약식(弱息)이 군의 덕을 밧앗시민 너 호놀과 청혼 날이 잇노라 호더니 그 후 공이 십군을 디니고 슈는 구십관제호니라(太 1:1:15)

- ㄷ · 드름이 아니라 다만 집이 가난호여 괴한을 건더지 못호오민 지아비 굴며 죽기의 니르렀는지람(太 1:1:27)
- 미양 옥슈의 지를 정호오민 혹 각박호 아견의 슈탄으로 경한 죄를 중히 지우거든(太 1:2:5)
- 너 힘배 가브압게 호오민 죽을 죄를 고쳐 귀항가게 호면 큰 돈 하나 흘너코(太 1:2:5)
- 일죽 상공의 처스호심을 보오민 조곰도 그릇호심이 업더니(太 1:2:33)

(43 ㄱ)은 시상 선어말 어미 「-잇/잇」 과의 결합을 보여 주며, (43 ㄴ)은

높임 선어말 어미 「-시-」와의 결합을 나타내며, (43 ㄷ)은 겸양 선어말 어미 「-오-」와의 결합을 보여 준다.

(44) 가 · 네 아들이 지물을 속의민 죄일은 즈연이 염군이 잡아 물을연이와(龜君15)

· 뜻밖게 홀연 눈에 씩의민 ……일일이 즈서히 살피(龜君26)

나 · 가는바에 문득 막히민 서와 농을 임의로 호논도다(龜君38)

ㄷ · 향을 살우민 씨이든 더러운 남우로 불을 다리니(龜君17)

ㄹ · 향말국이 업쳐져 그 비의 씨치민 살이 점점 썩고(龜君23)

(44)는 사동 접사 「-이-」, 「-히-」, 「-우-」와 강세 접사 「-치-」와의 결합을 보여 준다.

(11) 「-므로」

「-므로」는 용언 뒤에 붙어 쓰여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다. 문헌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 본다.

(45) 가 · 사중에 유린이라 호는 나는 호근호므로 일컷고 육종주라 호는 니난 글잘 호고 말
살 호므로 사중이 추복(推服)호디니(南宮10)

· 네 한아버와 아버 다 질박호고 삼가 허물이 업스므로 너를 임의향과 호게 주를 다
라(南宮11)

· 감테연운호고 위극문신호므로 감푸리라(南宮13)

· 하남의 봉현관이 되어 선치호므로 포평의 데일이 되어 어스에 빠히니라(南宮13)

· 이의 법을 범호였시므로 칼 뺀위 장최운 무슈히 하고 선비 일흠을 삭적호니라(太
1:3:32)

ㄴ · 아들의 병이 위티호모로 조신 압회 꾸러 일빅권을 허송호고(龍君45)

(45 ㄴ)에서 보면 「-모로」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문헌에 따른 표기 차이로 보인다.

2) 양보

앞의 사실을 긍정하기는 하나 뒤에 부정적인 사실을 함축하는 연결 어미로 불구(不拘), 양보 등을 의미하므로 제약법과 반대가 된다.

(1) 「-아도/어도」

이 어미는 결과가 예상과 반대되는 양보의 뜻을 나타낸다.

(46) ㄱ · 혹 착흔 날을 보아도 힝함이 날너지 못호며(太1:2:53)

· 비록 철석 가운데 감초아도 맛츨니 찌치고 비상턴호리라(太1:4:5)

· 전우호로 건널거늘 싸라도 밋지 못호는지라(太1:4:5)

· 재물을 가뉘어이 너기고 의를 쵸하호는 집은 도적이 비록 그 집문을 지나가도 드러가지 아니호고 혹 그 집의 드러가도 상히치는 아니호니(過化12)

ㄴ · 첩은 죽어도 맛당호거니와(太1:5:9)

· 만일 늘거도 오히려 회란흔 줄 아지 못호면(南宮12)

· 남의 미련호고 완만호를 보미 례절이 업셔도 원망치 말고 남의 음식 먹는 거슬 보미 결초의 지나도 미워호지 말며(三聖21)

· 요귀러온 귀운이 비록 모질어도 하늘이 꿍어 감호시미 놀마다 발그시니(過化11)

ㄷ · 가히 나무랄되 업는 사롭이라도 공교로이 그 단쳐를 구호여 쾌방호기를 도호너니(太1:3:39)

· 비록 성헌 더위라도 더욱 성근호더라(太1:2:8)

· 텨디 스이에 조고만흔 곳지라도 신령의 몸이 비여 업스시미 업느니(龜君1)

ㄹ · 문신은 열히를 찬장의 고상을 하야도 조히홀 거시오(關明12)

· 음살과 구괘(口過) 싯곳만하야도 보용이 잇고(南宮13)

· 변화흔 가운데 쳐하야도 염탐흔 므음이 잇고 빈천흔 가운데 쳐하야도 원우흔는 므음이 업스며(三聖21)

· 일이 임의 그릇되야도 스스로 용서하며(三聖23)

ㅁ · 남의게 욱을 밧더라 하여도 원망치 말며(太上 大文解3)

· 또흔 죽드라 하여도 남은 최망이 잇서(太上 大文解10)

· 의식이 족흔 썩를 당하여도 항상 공구흔 심각을 먹고(太上2:54)

· 혹 식이 즈못 넉넉하여도 항상 고루흙궂치 하여(太上2:54)

(46 ㄱ, ㄴ)은 어간 말음에 따른 「-야도/어도」의 교체를 보여 주며, (46 ㄷ)에서 처럼 서술적 조사 「-이-」, /j/ 뒤에서 「-라도」로 바뀐다. “곳지라도”는 “곳이라도”로 표기되어야 하나, 중철 표기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46 ㄹ, ㅁ)은 /j/, 「흐-」 뒤에서는 모음조화의 원칙에 의해 「-야도」가 올 것이나 모음조화 원칙의 파괴로 인해 「-야도/여도」가 혼용됨을 보여 준다.



시상 선어말 어미 「-더/드」와의 결합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47) · 어둔 집의 마음을 어지렛(弊) 디려도 노는 귀신이 잇느니(關明23)

· 사름이 썩를 만나고 만나지 못하엿드라도 각기 시절이 잇스니(關明12)

접사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8) · 만번 죽여도 오히려 가뵈엿건마는 그 잠간 머리를 부쳐 두기논(過化12)

· 능히 꿈이 텨하의 덩피여도 도저의 성분 가운데로 좃춘 나지 아니하야서(南宮3)

(2) 「-고도」

불구의 뜻을 나타낸다. 이는 나열의 어미 「-고」와 보조사 「-도」가 결합된 것이다. 중세 국어에서는 /ㄱ/이 /ㄹ/과 /j/ 밑에서 탈락되었다.

- 비록 그 病이 가비얍고도 醫와 藥와 病 간슈하리 업거나(釋譜9:36)
- 앞이 모달오도 無相猶矣실씨(龍歌103)
- 시혹 사르미 드외오도 ㄴ가년 ㄴ미 조이 드외야(釋譜9:16)

19세기 국어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고 다음의 용례가 있을 뿐이다.

- (49) · 사람의 은혜를 بات고도 감격지 아니하여 하며(太上 大文解4)

(3) 「-나」 30)

이 어미는 후행절이 앞의 사실과 반대됨을 나타낸다.

문헌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 본다.

- (50) ㄱ · 함춤이 그 아전을 중칙하나 또흔 홀일 업서 그 날이 그쳐더라(太上3:46)
- 지혜와 숭상하미 비록 ㄴ푸나 이기는 거슬 결단하미 업고(關明19)
 - 문이 잇스나 항상 닷쳐 두고(關明20)
 - 비록 보화톨 엇으나 무슴 유익하리오(太上:4:6)
 - 더량이 노하여 꾸지즈나 홀일 업서 드드여 네톨 날위 스회톨 삼으니(太上:4:31)
-
- 발키 나타나는 거시 이르고 ㄴ지나 북이 맞춤 너림하느니(關明23)
 - 말이 비록 적으나 화북이 쫓지 업는이라(龍君9)
 - 말 비록 소실이나 실은 마음을 노은 타시니(龍君16)

30) 이 어미에 대해 이승녕(1985)은 직접법의 단순 불구법으로 不定, 疑訝, 假想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 ㄴ · 말씀은 비록 천근호는 심신의는 크게 이익호리라(三聖7)
- 디방은 비록 다르노 교화호는 니치는 혼 가지니라(過化13)
- 법계 안을 두루호는 엇지 조고만 곳지는 신령의 몸이 업스시미 잇슬이요(龜君1)
- 보기는 비록 능치 못호는 알기는 능히 아논니(龜君1)
- 오직 조군 성탄은 잇스노 엇지호야 쥬장호미 업서 격적호고 처랑호리요(龜君5)

(50)에서 보면 「-나」는 앞뒤의 반대 상황을 나타내며 양보의 의미를 갖는다. 이 경우 “비록” 과 같은 부사를 수반한다. 18세기 중엽에 제 1음절에서도 /ㄴ/음이 소실되었는데³¹⁾ 이러한 소실로 인해 /ㄴ/가 혼란스럽게 표기되고 있다. 그래서 /ㄴ/음이 아닌 것도 /ㄴ/로 표기되는 예가 보이는데 (50 ㄴ)에서 보이는 예처럼 「-나」가 「-느」로 표기되어 나타난다.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 본다.

- (51) ㄱ · 지아비롤 슬니려 호여 이의 니르오나 평일의 부부지정이 즈별호옵다가 일조의 타인을 섬기게 되니(太1:27)
- 그 상소초는 비록 하찬연의 지은 비오나 소롤 올녀 생스호기는 날노 말미암으미니(太1:2:35)
 - 심은 산촌우민이라 시셔롤 아지 못호고 지식이 업스오나 성년. 팔십의 오직 텃지신 명을 공경호여 삭망과 절일의 반드시 분향 예비호고(太1:2:40)
- ㄴ · 비록 조정이 좃지 아니호였시나 명부의 의의 네 죄롤 귀록호지라(太上2:10)
- 비록 기화호기 잘못호기로 득죄호앗스나 일편 즈비호는 마음이 종시 마지 아니호는 지라(過化12)

「-나」는 어간에 바로 붙기도 하고 선어말어미를 내세우기도 한다. (51 ㄱ)은 겸양선어말어미 「-오/스오-」와의 결합 양상을 보여 주며, (51 ㄴ)은

31) 이기문, 앞의 책, p.201.

시상 선어말 「-앗/엇-」와의 결합을 보여 준다.

(4) 「-건마는」

앞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측을 뒤집는 뜻을 나타낸다.

중세 국어에서는 「-건마른」으로 표기되었던 것인데, 반드시 선어말어미 「-거/어-」를 앞세우며 어간 ‘오(來)-’뒤에서 「-나-」가 오는 상보적 분포를 보이며, 「-가/아-」 「-어/아-」를 앞세우기도 했다.

- 물 김고 비 업건마른 하늘히 命하실씨 물 툃자히 건너시니이다(龍歌34)
- 그되 내 머리서 ㄹ비 오난마른 如來스 舍利는 몬 나소리이다(釋譜23:54)
- 내그에 모덜언마른……罪를 니러 다시 브려시니(龍歌121)
- 다 보지 나미 불휘 업슨 줄 아니언마른 漂蕩하야 느폰 브르물 좃느니(杜諺6:53)
- 나도 또 僧衆과 慧可를 스승하간마른 모미 오히려 禪寂에 밋엿노라(杜諺16:1)
- 해탈을 得하안마른 그러나 이는……~足히 念흥거시 아니라(月釋13:5)

(52) ㄱ · 텃하의 총명 준수한 사람이 적지 아니건마는 몸을 덧그미 덕힘이 니루지 못하고 공업이 니르지 못한 바는 다만 그리저리 하여 일성을 보니미니(太上2:55)

· 형실이 기와 덧긔튼거슨 조니 명을 정하면 한번 죽여도 오히려 가뉘업건마는 그 잠간 머리를 부쳐 두기는 비컨디 어리 속의 도야지를 그 삶진 연후에 칼을 더하곰과 갓트니(過化12)

ㄴ · 상세계오셔 인이호오신 믿음의 엇지 참아 큰 겁운으로 이 빅성의게 독흔 별을 누리 시리오만는 다 밋지 아니호기로 부득이 흥악흔 신령의게 손을 빌어 칼날을 주어…… 양선흔 믿음을 흥괴홀가 하시미니(過化10)

(52 ㄱ)에서 보면 19세기 국어에서는 연결 어미 「-건마는」이 쓰이긴 했으나 (51)과 같은 분포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2 ㄴ)은 「-마는」이 현대 국어와 같이 어미에 직접 연결되어 보조사의 기능처럼 쓰이기도 했음을

말해 준다.

(5) 「-거니와」

앞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측을 뒤집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중세 국어에서는 반드시 선어말어미를 「-거/어-」 「-나-」 「-가/아-」를 앞세워 쓰였다. 그리고 「-거-」는 /r/ /j/, 「-리-」, 서술격조사 어간 「이-」 다음에서 탈락되어 쓰였다. 그러나 근대 국어에서는 「-거/어-」가 쓰이나 중세에 보였던 「-나-」 「-가/아-」의 교체를 보이지는 않는다.

(53) ㄱ · 착한 날을 하기로 삼천 가지 슈회 오리지 아니하여 춧거니와 이제는 발원한 슈 일 만가지오(太上2:54)

· 네 명도는 엇더한지 모로거니와 설녕 부귀영화롤 당하더라 하여도……마치 순치 아닌 것 궂치 하며(太上2:54)

ㄴ · 이 또한 제 분복의 잇는 거시어니와 다만 괴심하여 작열(造業)이 만하시미 하늘의 죄롤 어든지라(太上3:47)

· 천히 너겨 좃밧는 자는 조손의 장리 형통홀 계교롤 아니하는 거시어니와 글조 공경치 안는 보복을 바드물 홀노 두려워 아니하라(敬惜5)

ㄷ · 모든 착한 일을 신심으로 봉행하면……인물이 다 평안하고 길성이 빗치러니와 만일 악심을 두고 선스를 헛치 아니하야(三聖5)

· 허물을 궂쳐써 어진거슬 하면 또한 좋은 거슬 조차 길한더로 도라오러니와(三聖24)

(53 ㄱ)의 예는 선어말 어미 「-거-」를 앞세운 형태를 나타내며 (53 ㄴ)의 예는 선어말 어미 「-거-」가 /j/뒤에서 /ㄱ/이 탈락함을 보여 준다. (53 ㄷ)은 어미 「-니와」의 /ㄴ/이 어간 말에 가 붙은 형태를 나타낸다.

- (54) ㄱ · 스인 왈 그는 진실노 그러타 하려니와 그 생각건더 기시 흉년을 당하여 당성 벽성이 죽기의 니르렀거늘(太上2:35)
- 인의와 도덕은 가히 힘으로 구하여 엇으려니와 공명과 부귀는 남의게 잇는 비니(太上2:50)
 - 안민이 울며 굴오더 속이기는 속이려니와 다만 돌긋회 안민이 속이다 괴록하기는 말고져 바라느니(太上3:43)
- ㄴ · 죄일은 즈연이 염군이 잡아 물을연이와 너 아주 갑는 거슬 드러니여써 중인을 뵈노라(寵君15)
- 초계을 정성으로 드리면 적이 그 허물을 풀연이와 그러나 부역을 더러인 허물은 다 네 어미게 관계헌 일이니 세상의 잇기을 다만 두달 뿐이니라(寵君17)
- ㄷ · 텃하슈를 자바당게다가 탕척하라니와(關明16)
- ㄹ · 전 왈 못 보았거니와 아모려나 도흔 공덕을 만히 지으라 하니(太上1:43)
- 너 진실노 잘못 하였거니와 네 아들이 또한 닐을 그릇하미라(太1:5:58)
 - 이제 처음으로 창기하야 규모를 대강 갓초앗거니와 미뤄여 닐니하고 미진헌 도건을 충수하기는 후인을 기드럴지니(敬惜8)

(54 ㄱ)은 이 어미에 「-리-」를 앞세운 표현이며, 이는 (54 ㄴ)에서 처럼 「-라-」로도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54 ㄴ)은 「-려니와」를 표기자의 기호에 따라 「-르연이와」로 달리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54 ㄹ)은 시상 선어말 어미 「-앗/엇-」과의 결합 양상을 보여 준다.

(6) 「-ㄴ들」

양보의 태도를 인정하면서 「-라고 할지라도 어찌」의 뜻이며, 뒤에는 反語의 의미를 가진 反問이 와서 設疑法을 이룬다. 이 어미는 고시조에서 상투적으로 많이 쓰였고, 의존 명사 「든」가 쓰인 「-ㄴ들」은 뒤에 오는 문장이 반

어나 설의법에 구애 받지 않고 고시조가 아닌 樂章에서 많이 쓰였다고 한다.³²⁾

문헌에 나타난 의미를 살펴 본다.

(55) ㄱ · 그 명을 두 번 하지 아니하시니 괴도흔들 무엇하리잇고(太上4:3)
· 그대 날마다 즐겨 그치지 아니하고 음욕이 무한하니 후의 뉘우춘들 엇지 밋츠리요
(太上4:19)

ㄴ · 엇지 슈유(須臾)지간인들 더더리오 하더니(太上1:24)
· 스름의 즈식된 지 그 뜻을 잘 밋들면 능히 경직인들 좌우에 떠날소나(南宮4)
· 스름의 즈식된 지 그 뜻을 잘 밋들진더 능히 경직인들 좌우에 떠날소나(南宮4)

(55 ㄴ)은 서술격 조사와 결합하여 한 어미처럼 쓰임을 보여 준다.

(56) ㄱ · 조금 참자 못하던들 그 해 곳 니를번 하래라(太上3:45)
· 너 당녕의 이 집의 안거하엿던들 엇지 오늘날 이 지경의 니르리오(太上4:39)
ㄴ · 만일 이 상소를 시형하엿든들 그대의 착흔 덕이 세상의 흘넛지리니(太上2:23)
· 오일만 치오든들 아조 화하여 강으로 드러가고 디스랄 날올너라(太上5:66)

(56 ㄱ)에서 처럼 선어말어미 「-더-」을 앞세운다. (56 ㄴ)의 「-드-」는 모음조화 체계의 혼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7) 「-르지라도」

「-르지라도」는 「비록 그러하더라도」의 뜻으로 미래의 일을 양보적으로

32) 김태곤, “연결 어미 연구, 옛시가를 중심으로”, 백록어문 2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1980, p.64.

가정하는 의미로 중세 국어에는 쓰이지 않았는데, 이 시기에 쓰이며 현대 국어에서도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문헌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 본다.

(57) ·가세 높고 명망이 중홀지라도 항상 늦고 천흠 곳지 흐며(太 1:2:54)

「-리지라도」는 그 조건이 개방되는 양보의 의미를 갖는다.

(8) 「-리지연정」

「-리지연정」은 그 조건이 개방되어 있는 양보의 의미를 갖는다.

문헌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 본다.

(58) ㄱ ·사롬의 법의 걸니미 마지 못흐여 가도며 득스릴지연정 위 무리 옥 가오마는 직취
이 잇스니 엇지 무홀터 아니리오(太 1:2:8)

·차라리 과거의 밋지 못홀지연정 사롬으로 흐여곰 비명의 죽기불 엇지 흐리오(太 1:
3:20)

·너 차라리 죽을지연정 엇지 춤아 이러할 벌을 흥흐리오(太 1:5:13)



3) 의도

희망,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를 말한다.

(1) 「-고져/고즈/고자/과져」

「-고져/과져」는 希求나 願望을 나타내는데 반해 「-려」, 「-자」는 의도의 의미를 띠다고 보겠다. 그리고 이 어미 뒤에는 '원하다, 바라다' 등의 희망을 나타내는 말이나 보조 용언 「하다」가 오는 일이 많다. 특히 그 뒤에

「하다」가 뒤따를 때는 의도의 의미를 강하게 나타낸다고 본다.

- (59) ㄱ · 원컨대 이 몸으로써 약 감슬 감고저 호노라(太上1:7)
· 만조빅관의 다 그 얼굴의 춤을 밧고저 하더라(太上2:32)
· 다만 돌 뜻회 안민이 속이다 괴록하기는 말고저 바라느니(太上3:43)
· 중조모 왕시(氏) 능동의 근치를 먹고저 하거늘(太上1:3)

- ㄴ · 슈족을 들고즈 하되 능히 못하며(南宮4)
· 북 밧출 날니고즈 홀진디 모로미 심디(心地)를 빙즈홀지라(南宮6)
· 원슈을 감고즈 하되~착흔 일을 헝헝기로(龜君10)

ㄷ · 겁운을 멀니하고자 홀진던 스스로 죠흔 방문이 잇스되(過化12)

ㄹ · 다만 황식 어미의 슬피 우는 거술 면과저 흠이라(太上5:45)

(59 ㄱ)의 「-고저」는 자신의 행동이나 동작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바라고자 할 경우에 쓰이고, (59 ㄹ)에서 알 수 있듯이 제 3자의 행동이나 동작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회구하고자 할 때에는 「-과저」가 쓰인다.

- (60) ㄱ · 익미흔 죄를 벗겨 윈역흔디 썩지우지 말고저 흠이니(太上2:7)
· 다만 돌 뜻회 안민이 속이다 괴록하기는 말고저 바라느니(太上3:43)

- ㄴ · 네 이제 므음을 독히 하여 형벌노 베 사롬은 헝헝고저 하니 이라므로 즈손이 모다 형벌의 죽을 거시요(太上2:10)
· 너 정히 드른바를 공경하여 괴록하고저 헝 지음에 뜻밧게 홀연 눈에 썩이미(龜君26)

- ㄷ · 바야흐로 홍공코즈 하느니 다 헝고(南宮17)
· 심각이 이어 성편코즈 호디 또 마음과 갖지 못함물 한하여 경경불망하다가(龜君27)

· 부민이 지물을 탐_ㅎ여 모_히코_전 흙으로 제 쌀을 감초고 옥스물 니루미라(太上2:7)

(60 ㄱ)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처럼 어간/ㄹ/ 뒤에서 /ㄱ/이 탈락되는 예는 보이지 않는다. (60 ㄷ)에서 처럼 「ㅎ-」가 올 경우 유성자음과 모음 뒤에서는 축약되어 쓰이고 있다.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 본다.

(61) · 공이 그 죄를 의심_ㅎ여 술_오고_전 흐_되 묘리 업숨을 근심_ㅎ더니(太上2:2)

(61)의 예에서는 의도의 선어말 어미 「오」를 앞세운 예가 보인다.

(2) 「-자」

「-자」는 종결 어미로도 쓰이지만,³³⁾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도 쓰이는데 19세기에는 다음의 용례가 있을 뿐이다.

(62) · 사람을 위터이 하고 제 홀노 평안_ㅎ자_하며(太上 大文解5)

(3) 「-려」

후행하는 행위의 의지나 의도를 나타낸다. 중세 국어에서는 항상 의도법의 선어말 어미 「-오/우-」를 수반하는 특징이 있었으나, 19세기 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울모려 님금 오시며(龍歌16)

33) · 영종의 티즈를 폐하고 고쳐 티즈를 세우즈 흙과 영종을 남성의 가도_자 흙이니(太上2:30)

· 世亂을 救호려 나사(龍歌29)

19세기 국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 본다.

- (63) · 텃상선이 되려 호는 즈는 맛당이 일척삼빅 가지 착흔 닐을 힘할거시오(太上 大文解3)
- 장춧 쌀을 식집 보너려 호시(太上1:14)
 - 귀신이 잠으려 음을 보고 칠규의 피를 흘니고 죽으니(太上1:47)
 - 문져(先) 공을 닐우려 호여 물을 헤쳐 고을의 다여 막여 인을 포물하고 그 성을 못지르려 호거늘 공이 흘노 말너 불가타 호고(太上1:51)
 - 비 오기 전의 음식을 먹지 아니려 밍세호고(太上2:40)
 - 뉴혈이 낭자호니 즈로 죽으려고 서들며 그 쥬모의 지아비 쏘흔 그 쳐를 꾸짓고 나므라니(太上3:20)
 - 회시를 보려 네부의 나아가 을시홀시(太上3:30)
 - 시관으로 더부러 언약이 이셔 열흔지를 시기려 혼다호여 알스호엿더니(太上3:35)
 - 돈을 가지고 쌀을 밧고려 오는 사롬이 이시면 말과 되를 쥬어 제손으로 되게 호며(太上3:49)
 - 비단을 무역호려 금능으로 가노라 강을 건너더니(太上3:57)
 - 차라리 이 물의 쟈져 스스로 죽으려 호노라(太上3:52)
 - 비단을 무역호려 금능으로 가노라 강을 건너더니(太上3:57)
 - 그 아비 분흠을 니끼지 못호여 관가의 하리려 나가거늘(太上4:26)
- (64) · 일일은 보리를 꺾서 밥을 지을여 호더니 그 보리 화호여 느뵈되여 스면으로 나라가며(太上5:16)

(64)의 예에서는 「-려」의 /ㄹ/이 앞 어간에 붙은 형태가 보인다.

4) 목적

「-라/랴」

의도나 목적을 나타낸다. 어원적으로 동명사 어미/르/에 처격 조사의 고대형인 /아/가 결합된 것³⁴⁾으로 현대 국어에서는 「-러」로 바뀌었다.

(65) ㄱ · 항주 썩히 띠미 흘라 갖더니(太上3:51)

- ㄴ · 말하되 원귀가 명일은 웅당 환싱흘라 갈 거시니……원슈을 갑푸리라(龜君11)
 - 장춧 핁지소의 회시를 보라 갈식……대군 사당의 드러가 썸을 빌며(南宮10)
- ㄷ · 미양 사롬을 음히흘라 하면 그 집에 드러 궁극히 싱각하다가(太上1:46)
 - 도보(趙普)의 상위를 아스라 하야 도보의 단쳐를 해방하거놀(太上1:48)
 - 무회(武后) 장춧 그 므음의 맛지 아니하논 신하를 덜어브리라 흘새(太上2:13)
 - 산과 언덕을 열어 조운 길을 통하랴 흘시 남회(林鑄)상소하야 그 닐을 간하여 맛엿더니(太上2:25)
 - 형슈의 지물을 썩아스라 하야 관가의 송스홀시 맞치 사롬 잡으려 하는 모양이라(太上2:78)
 - 그 후의 뉴근이 반하랴다가 버힌비 되니라(太上3:3)
 - 사롬으로 하여곰 괴도하랴 하시니 엇지 능히 여러 닐을 막으리잇고(太上4:3)
 - 장춧 저지의 니여 버히랴 흘시(太上4:35)
 - 그 집의 들입하여 진시를 잡아가랴 하니(太上5:6)
 - 죠죠의 간사를 달니랴 하다가 간계의 속아 스스로 먹어나서 신령흔 거슬 지살하랴(關明21)
 - 무슨 연고로 활을 베풀고 그 물에 즈부랴고 찾는고(關明21)
 - 절른 녀즈 하나히 비를 피하랴 하되(關明31)
 - 진나라를 놉혀 황대를 시기랴 혼디(關明31)

(65 ㄱ)은 목적을 나타내며, (65 ㄴ)은 의도를 뜻해 같은 어미 형태이지만 의도로도 목적으로도 쓰인다.

34) 안병희. 이광호, 앞의 책, pp.253-254.

5) 도급

어떤 상황. 경지에 이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를 말한다.

(1) 「-도록」

어떠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음 일을 계속함을 나타낸다. 중세 국어에서는 「-도록」이었으나 「-도록」도 간혹 나타나 쓰이더니,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도록」이 일반화되었다.³⁵⁾ 19세기에는 「-도록」만이 나타나는데 접미사 「-히-」에 연결될 때에는 「-토록」으로 축약되어 쓰였다.

문헌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 본다.

- (66) ㄱ · 밤이 진토록 마지 아니하고 날이 붉으막(太上1:5)
· 종신토록 마지 아니하고 날이 붉으막(太上1:5)
· 괴어히 죽도록 흠이 이 무슨 도리리요(太上2:2)
· 단을 둘러 섬홀 쓰코 날이 맛도록 빅번이나 절히더니(太上2:40)
· 부모의 장수히기를 빌어 이리히시 돌이 넘도록 그치지 아니히더니(太上2:41)
· 기름 한 냇중을 허면 능히 열홀이 되도록 붉으며 사람의 터럭을 비치고 풍우와 빛
같이 능히 침노히 못히니(太上3:2)
· 관전 니천 오빱을 지고 한(限)이 지나도록 감지 못히여 이리 괴로으를 밧노라(太上
3:27)
· 각의 나히 팔십의 니르도록 그 업을 폐치 아니히더니(太上3:49)
· 너 해아리건더 조어의 절귀홀으로 엇지 빅머리토록 잇는고 히였더니(太上4:9)
· 문정공을 셤니 죽으라 축원히더니 날이 늦도록 문을 녀지 아니히고 불너도 응치
아넛는지라(太上4:32)
· 졸연 병들어 종신토록 말을 못히니 명스(冥)의 보우이 이곳치 썩르더라(太上5:7)
· 어려서부터 가난히고 병이 만호며 늙도록 낭피히여 천히고 궁곤히더니(太上5:56)

35) 안병희, 이광호, 앞의 책, p.255.

- ㄴ · 옥중을 쓸어 정결토록 할시 비록 성헌 더위라도 더욱 성근하더라(太上2:8)
 - 음식과 탕약과 와구(臥具)를 정하고 편토록 하여 죄인을 주고 상히 도흔 말노써 죄인을 그르치되(太上2:9)
 - 싹을 쓸어 못을 만드시미 부디 깊고 너르도록 하시며(太上4:3)
 - 집을 지으시미 부디 높고 크도록 하시며(太上4:3)
 - 무슈이 곤욕하여 제 싹을 좃도록 꺾박하니(太上3:56)
- ㄷ · 오리도록 헹하면 모름즉이 불측한 효험이 이시리라(太上3:17)
 - 성에게서 밤식도록 춘츄를 일그시미(關明17)

(66 ㄱ)은 「-하기 까지」의 到及의 뜻을 나타내며, (66 ㄴ)은 부사화 접사 「-게」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그리고 (66 ㄷ)은 「-도록」이 마치 부사처럼 굳어져 쓰임을 보여 준다.

(2) 「-게」

어떤 동작이나 상태에 도달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다. 중세 국어에서 보이던 서술격조사 「-이-」 선어말어미 「-우리-」 /ㄹ/ /j/뒤에서 /ㄱ/이 탈락되어 「-에, 의/의」로 교체되어 쓰였으나 「-기/귀」가 16세기에 소멸된 후 근대 국어에서는 「-게」만 남게 되어 현대 국어에 이르고 있다.

문헌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 본다.

- (67) ㄱ · 어둡게 속이며 빗구러지게 말하고 구부러지게 말하야(三聖6)
- 상데 아름다이 녀이스 삼터를 다 창성케 기록하시미니라(南宮12)
 - 오곡을 갈고 호뫼질 하는 거슬 적게 쓰면(關明12)
 - 상서가 되게 성인 신령을 나타내리라(關明13)
 - 사마(駟馬) 용납하케 문을 지으라 하야더니(南宮6)
 - 말과 저울을 공평히 하야 적게 주고(南宮7)

- 너를 임의향과 학게 주를 다라 충후헌 보(報)를 발켜더니(南宮11)
- 검박훈과 부지런헌 서슬 중케 녀기지 아니호며(三聖6)
- 빗구러지게 말호고 구부러지게 말호야(三聖6)
- 말과 저울을 공평이 호야 .적게 쥘고 만히 밧지 말며(三聖12)

(67 ㄱ)에서 보듯 ‘도달’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 어미와 보조적 연결 어미의 「-게」와는 의미면이나 형태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이 어미 뒤에는 본용언이 연결되어 부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6) 전환

한 동작이나 상태에서 다른 동작이나 상태로 전환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를 말한다.

「-다가/ㄷ가」 36)

「-다가/ㄷ가」는 계속되던 상태나 동작이 다른 상태나 동작으로 연결되는 순간의 중단을 보여 주는 어미라 할 수 있다.

「-다가/ㄷ가」의 혼용의 이유는 /ㄷ/ 음가 소실로 인해 /ㄷ/음이 쓰이지 않은 것까지 /ㄷ/음으로 표기되는 혼란 상태를 뒷받침하는 예라 볼 수 있다. /ㄷ/음의 소실로 인해 모음조화의 원칙이 약해지고 어휘나 자신들의 발음 습관을 표기에 반영한 결과라 생각된다.

(68) ㄱ · 지물을 *비다가 엇지 못호면 드되여 구슈갓치 호며(三聖23)

36) 이 연결법을 최현배(1971)는 여태까지 하던 움직임을 그치고 다른 움직임을 나아가는 꼴을 이룬다고 하여 “중단형”이라 하였다

ㄴ · 큰 뜻을 잡아다 바리고 조흔 방변을 행하면 복된 성신이 임하시리라(龜君31)

(68 ㄱ)의 예는 어간 末音 /ㄹ/이 /ㄷ/, /ㅈ/앞에서 탈락되어 나타남을 보여 주며, (68 ㄴ)은 「-다가」가 준 형태로 보인다.

문헌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 본다.

(69) ㄱ · 부인이 그 아들을 어루만져 크게 슬허 하든가 문득 두 눈이 드시 열녇는지라(太上 3:18)

· 그 후의 뉴근이 반하라다가 버힌비 되니라(太上3:3)

ㄴ · 피 썸기톨 길나마 하든가 죽은지라(太上4:58)

· 만일 그 류인이 비복을 형벌하여 못드가 죽기의 니르면 이곳 우리 허물이니(太上 3:20)

· 오리(鴟)와 계우(鴨)의 무리 불가호로 도라 단다가 덤고 목 말나 그 물을 먹으니 남이 쓰겁고 창직 타며 안팎그로 다 닉어 (太上5:55)

· 명일의 가지고 그 절의 가 기드리다가 님즈를 츠즈쥬니(太上1:11)

· 종과 나니 앞프기 골슈의 스몯는지라 슈년을 호통하다다 죽고(太上2:76)

· 김심이 쏘 그 모양으로 기드리다가 썩라 드러오니(太上4:58)

· 제 집의 연고 이심을 칭탁하여 진시의 곳의 머무루다다가 니용하게 하고(太上5:6)

· 그 첩이 창밭과 잇서 머뭇거리다가 홀연 큰 비암이 되어 남과 감기거늘(太上5:23)

ㄷ · 우리는 몬져 가 보리라 하여 잇글고 가다가 한 슈플 속의 드러가……죽이고(太上 4:54)

· 과연 계집종이 물을 버리드가 물과 흙의 버렷더니 쥬외 그 종을 달초하여 뉴혈이 낡자하니(太上3:20)

· 아모 흑동이 아모 흑동으로 더부러 노름하다다가 돛토아 쳐 죽엿다 하더니(太上3:34)

· 착한 사름이 혼즈 가다가 비를 만나 일산을 가지고 안젓더니(關明31)

· 로중년이 맛춤 조나라의 가서 잇다가 조왕 다려 리히를 말하되(關明31)

· 이의 조희하고 도라오다다가 쥬노의셔 죽으니 그 집의 드시 니르지 못하고(太上2:61)

- ㄹ · 절의 니르러 술 먹다가 장경당의 드러가니(太上4:38)
 - 비단 보홀 난간 우회 노코 부처의게 빌기를 냥구이 하다가 인하여 그 보홀 닛저 버리고 가거늘(太上1:16)
 - 사름의게 구청하다가 닐우지 못하고(太上 大文解6)
 - 일일은 그 종이 뷔(빛자루)를 들고 당 압회 니르러 익이 보다가 체읍호기랄(太上 1:14)
 - 그 상괴(商) 날을 쏘노 정하여 기르다가 시랑 상공의게 식집 보너여 부실이 되엿더니(太上3:6)
 - 조조의 간스를 달너라 하다가 간계의 속아(關明17)

- ㄱ · 낭위논 황제의 인친으로 위권을 유세하여 그 말을 구청하다가 엇지 멧하고 가만이 죄를 엮어 효직을 모함하여 옥의 느리우니(太上2:73)
 - 그 지아비 도치의 헛 띄혀 혼절하엿다가 이의 쨌여 오미라(太上4:54)

(69 ㄱ)은 사건의 반전됨, (69 ㄴ)은 사건이나 행동의 지속됨, (69 ㄷ)은 ~중에, (69 ㄹ)은 다른 사건으로의 移行됨, (69 ㄱ)은 일시적인 행동의 중단됨을 나타낸다.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 보겠다.



- (70) ㄱ · 홀일 업서 거두어 가지고 와다가 잇튼날 드시 가 기드러더니(太上1:16)
 - 건창이 일즉 사명을 받드러 중국의 갓다가 데묘의 비알호읍고 (南宮2)

- ㄴ · 종야를 각좌(各坐) 하엿다가 그 지아비를 불너 도르 출너 보니고(太上1:27)
 - 사름의 의혹을 드를지니 머물너 두엇다가 날이 붉거든 가져 가라 호고(太上1:29)
 - 두숙이 잔치의 참여하엿다가 양의 고기를 품어 티후 띄 알외니(太上2:31)
 - 엄동의 쨌러지고 쨌러져다가 양춘의 발호느니(關明22)

- ㄷ · 태일 되야다가 다시 데륙이 되단 말이라(南宮14)

· 김이상이 우연이 혈증을 어더 복악 무효호더니 맛춤 협석진의 손(客)이 되야다가 메군이 음즐문을 어더보고……이상의 병이 즉시 나흐니라(南宮17)

ㄹ · 일일은 순이 옥국관의 가노다가 메군 화상을 어더(南宮9)

· 또 산스의 가노다가 들닌(遺) 금 두덩이와 은 슈십냥을 엇어 도라오더니(太上1:11)

(70 ㄱ,ㄴ)은 시상 선어말 어미 「-앗/엇-」의 교체를 보여 주며, (70 ㄷ)은 위의 예는 그 의미상으로는 과거의 의미나 「-앗/엇-」의 형태가 없이 쓰인 예이다. 그리고 「-다가」는 그 의미상 「-느-」가 올 수 없다. 표기 혼란으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높임 표현의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71) ㄱ · 미 인명하의 혼 슈결을 쓰시다가 쥬져호야 붓슬 나리오지 아니시더니 (南宮11)

ㄴ · 평일 부부지정이 즈별호옵다가 일즈의 타인을 섬기게 되니 슬푸물 춤지 못홀소이다(太上1:27)

(71 ㄱ)은 높임 표현의 「-시-」와의 결합 양상을 보여 주며, (71 ㄴ)은 겸양 표현의 「-옵-」과의 결합 양상을 보여 준다.

7) 설명

설명은 뒤에 풀이하는 뜻을 나타내는 절이 오며, 뒤에 앞뒤절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역행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되」

「-되」는 설명의 계속. 인용. 반대적 상황의 전개됨을 나타내는 어미다.

중세어에서는 「-더」의 형태로 쓰이며 어간에 바로 붙지 않고, 반드시 선어말 어미 「-오/우」를 앞세우는데 이때 이 「-오/우」가 아무런 문법적인 기능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³⁷⁾과 이 「-오/우-」가 의도법 어미라는 주장이 있다.³⁸⁾ 「-오/우더」가 「-되」가 되는 변화는 중세 말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근대어 전기에서는 「-오/우더」와 「-되」가 혼용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19세기 국어에서는 다음 용례와 같이 「-오/우」는 사라지고 「-더」도 「-되」에 비하여 열세이다.

· 아히를 굴오치되(小學5.2)

문헌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 본다.

(72) ㄱ · 사롬을 궤방호되 너 브른말 호노라 닐크르며(太上 大文解7)

· 신령을 헛부리되 너 정대호여로라 닐크르며(太上 大文解8)

· 첩임이 무슈호되 종시 아들이 업는지라(太上1:8)

· 일성지너의 아니 타미(燒) 업스던 홀노 그 집은 범티 아니호고 그후 즈손이 다 귀히 되니라(太上1:24)

· 이피 슈십 년이 넘엇시되 발각지 아니호엿더니(太上2:37)

· 부스의 가라치시를 입으로 옹호되 믿음으로 어귀고 부모와 가정의셔 의심호여 편벽되니(三聖22)

· 스롬을 항복호되 입으로 편벽히 굴강호며(三聖23)

· 일호는 거시 어그러지미 만호되 문득 남이 쓰디 안니호를 원망호며(三聖24)

· 네 명분에 본더 후시 업스되 정성에 마음으로 나을 밧들물 인호야……쌍구슬을 어드리라(龜君20)

· 강건호 부모는 원(願)이 항상 족호고 그 마음이 항상 즐거오되 빈천호 부모는……

37) 허웅, 앞의 책, p.612.

38) 안병희 · 이광호, 앞의 책, p.310.

곳출 이 업는지라(南宮4)

· 강건한 부모는……친구를 무리 가히 빼 뜻을 즐기되……쇠하고 늙은 부모는……능히 못하며(南宮4)

ㄴ · 벼슬과 돈을 주시되 다 그 말과 갓흐였더라(太上1:7)

· 공이 크게 깃거 해오되 이 반드시 빅성중 호걸이라(太上2:42)

ㄷ · 모든 귀신이 서로 말하여 곱오되 아모집 아모의 체 그 지아비 나간지 오러디 도라 오지 아념을(太上1:22)

· 항상 곱오되 니 일즉 빅만지중을 거느릴시 씨씨로 착념하여 한 사람도 망녕도이 죽이미 업사니(太上153)

· 이 씨 소동패 위문하고 인하여 그로되 무릿 슬푸른 사랑으로 조초나고 사랑은 식으로 조초나는 비라(太上4:29)

· 그 어미 권하여 갈오되 적근 스름이 남의 돈을 맞당이 갑흐라(寵君15)

· 또 꿈의 신명이 니르되 서편 울 아래 곡식이 있다 흐거늘(太上1:4)

· 말을 지어 울의 귀의 들여 보니여 니르되 그 체 누구로 더부러 통간함이 있다 하니(太上3:31)

· 호승이 다시 보고 니르되 형의 상피 돈연이 변하여스니(南宮6)

· 그 신인이 칩을 가지고 선유하여 니르되 각심 성황의게 붓쳐 속히 음거한 어미 잇스되 돕기를 비는 말 아니 흐를 인하여(南宮11)

(72 ㄱ)의 예는 반대의 상황 전개를 나타내며, (72 ㄴ)은 설명의 계속을 나타내며, (72 ㄷ)에서 보면 후행절로 인용절이 뒤따름을 알 수 있다.

(73) ㄱ · 허물을 알되 고치지 아니하며(太上 大文解4)

· 착한 일을 알되 헛치 아니하며(太上 大文解4)

· 혹 꿈에도 주시물 어드되 스명을 혼계하는 글을 한 가지로 보는 더 뵈시니(寵君4)

· 또 무르되 너의 안히는 엇지 오지 안니 흐였는요(寵君11)

· 마턴우는 세 번 장가드되 무즈하여 발원하고 강필분 구천 장을 박였더니(過化20)

ㄴ · 스스로 사랑할 줄 아는 지면 오히려 금계홍물 아딘(南宮13)

(73 ㄱ)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73 ㄴ)에서는 어간 말음 /ㄹ/이 탈락된 예가 보인다.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74) ㄱ · 공이 크게 짓거 헤오디 이 반드시 빅성중 호걸이라(太上2:42)

· 글썽 삭이는 스통을 맞기고져 호디 힘이 마음과 갖지 못호미(龜君27)

· 니 슈가 늑집은 맛당호디 조군 비방헌 일노 이십스 년을 감호시니(龜君23)

ㄴ · 공조손이 다 현달호되 오히려 조심호야 가르치물 맞드더라(龜君22)

ㄷ · 신선도 될거시로디 다만 악념이 너무 만흠으로 그 힘이 반이남아 감호엿시니(太上2:23)

· 전성의 일즉 착헌 일을 호야 세상의 느셔 진스호고 녹적에 올는 벼술이 사랑에 일을 거시로디 스통호야 인명치스헌 되……그 녹홀 셋고 그 관녹을 쇼삭호시고 쏘 강씨 조손을 칠디을 빈천케 호신지라(龜君12)

ㄹ · 티상이 굴오사디 화와 복이 정헌 곳이 업서 오직 사롬이 스스로 부르미니(太上: 大文解1)

· 진종이 보시고 극진이 기리샤 지상 명위를 도라 보아 굴오사디 사롬의 지죄 이러듯 호거늘 경 등이 어이 천거티 아니호뇨(太上1:50)

· 광뵈 그 쫓을 알으시고 공쥬를 도라보아 꺄르샤디 날이 되지 못호엿다 호시더라(太上4:28)

ㅁ · 스통의게 령힘을 뵈시되 조신만 홀노 업스시니(龜君25)

ㅂ · 군이 슈훈(垂訓)호스 굴오사디(南宮3)

- 굴오사던 유린이는 벽벽(應)이 한 과거를 어들너니(南宮12)
- 링지 니르사던 구한 즉 엇는다 호시니(太上2:50)
- 상대계오스 이 경상을 보시고 이로스던 우리 무리 한갓 세상스롭 찌닷게 호는 일
흠만 가지고 실노 이 빅성을 교화호는 실상이 업다호스(過化11)
- 메군이 굴오스던 스롭의 모음 잇스미 하늘의 놀(日) 잇슴과 갓트니(三聖18)
- 상이 굴오스되 이는 왕자의 천거라(太上1:40)
- 조신이 현몽호야 꾸지저 갈오스던 네 본디 귀양은 신선으로 너 이제 금신 영제후
의 종지 되얏는디 너 집이 큰 죄는 업스나…… 이제 온역을 나리실 거시니(龜君17)
- 메군이 굴오스대 인성이 세상에 잇스미(過化3)
- 판대계오셔 일너 그로사던 네 병은 근심 업스리니(過化19)
- 집이 가난호여 남은 지산이 업소오던 오직 세낫 쥬머니 잇소오니 이제 가히 가져
와 보스이다(太上2:5)

(74 가)은 의도법 선어말 어미 「-오/우」와의 결합 양상을 보여 주며, (74 나)은 「-오/우」가 쓰이지 않은 경우를 보여 준다. (74 다)은 서술격 조사 어간 「-이」, 선어말어미 「-리-」 뒤에서 「-오/우」는 「-로-」의 형태를 띠음을 보여 준다. (74 라)은 「-오/우」앞에 선어말어미 「-시-」가 올 경우 「-샤」로 변동됨을 보여 준다. 「-샤」앞에 다시 「-오/우」를 앞세운 형태는 오용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74 마)에서는 「-오/우」를 앞세워 「-샤」로 변동되지 않은예도 보여 준다. 그리고 (74 바)은 /, \의 소실로 인해 모음체계가 흔들리면서 「-사던」 「-스던」이 혼용됨을 보여 준다. 겸양 선어말 어미 「-오/우」와의 결합 양상을 보여 준다.

다음은 접사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 본다.

- (75) · 세슈혈사 그릇 안의서 빗쳐여 뵈되 머리 우회 뇌기 한 가지가 똥치엇거늘(龜君19)
 · 삿호며 치는 형상을 호야 말니되 긋치지 안니호더니(龜君12)

8) 의심

앞의 일이 되어가는 정도에 비례해서 뒷일도 되어가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를 말한다.

「-르스록」

어떤 행동이 더해감을 나타낸다. 중세 국어에서는 「-디웃」, 「-르스록」이 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르수록」만 남아 있다.

- 하늘 돌히 놉디웃 목수미 오라느니(月釋 1:37)
- 사괴논 쁘든 늘갈스록 쏘 親_호도다(杜諺 21:15)

위에서 보듯 중세 국어에서는 「-디웃」이 쓰였으나 19세기 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76) · 나라의 제우_호미 이_러홀스록 더욱 두려운지라(太 1:1:41)
- 네 죄악이 갈스록 중_터호여 상제 장_춧 너_를 죄_주시라 호_거놀(太 1:4:15)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종속적 연결 어미는 다른 문장에 종속적인 관계로 연결시켜 주는 연결 어미를 말한다. 그러나 연결 어미의 유형 분류가 형태 유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접속되는 문장의 의미론적 성격에 의해 결정되다 보니 종속 접속에 분류하긴 했으나 「-나」, 「-건마는」, 「-ㄴ디/ㄴ되」 등도 “선택”이나 “대립”의 의미로 쓰인 경우 대등한 관계를 갖는다고 보겠다.

구속의 연결 어미는 원인, 조건, 가정, 반응 등 뒷말을 제약하는 어미로

「-으니」, 「-면」, 「-르시/르세」, 「-아/어」, 「-ㄴ디/ㄴ되」, 「-르진디/르

진된」, 「-관더」, 「-든」, 「-놀/늘」, 「-미」, 「-므로」가 여기에 속한다.

양보의 연결 어미는 앞의 사실은 긍정하기는 하나 뒤에 부정적인 사실을 함축하는 어미로 그 조건이 개방적이라는 점에서는 제약법과 반대가 되며 「-아도/어도」, 「-고도」, 「-나」, 「-건마는」, 「-거니와」, 「-ㄴ들」, 「-지라도」, 「-지연정」이 여기에 속한다.

의도의 연결 어미는 희망,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로 「-고져/고즈/고자/과져」, 「-자」, 「-려」가 여기에 속한다. 이 어미에는 그 의미를 점차 상실해 갔으나 의도를 뜻하는 선어말 어미 「-오/우-」가 쓰인다.

목적의 연결 어미는 「-랴/라」가 여기에 속하는데, 그 의미가 구분되지 않고 「-랴/라」가 목적으로도 쓰이고 의도로도 쓰임을 보여 준다.

도급의 연결 어미는 어떤 상황에 이름을 나타내는 어미로, 「-도록」, 「-게」가 여기에 속한다.

전환의 연결 어미는 다른 동작이나 상태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어미로, 「-다가/ㄷ가」이 여기에 속한다.

설명의 연결 어미는 설명, 인용을 나타내는 어미로 「-되」가 여기에 속한다.

익심의 연결 어미는 앞일이 되어가는 정도에 비례해서 뒷일도 되어가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로 「-르스록」이 여기에 속한다.

3. 보조적 연결 어미³⁹⁾

39) 보조적 연결 어미에 대해 선행 연구자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허웅(1981)은 현대 국어에서 보조적 연결 어미로 분류되는 「-아/어」 「-게」 「-지」 「-고」는 이것들 중 「-아/어」 「-지」만 연결법이라 하고, 「-게」는 미침법에, 「-고」는 나열에 분류하였다. 최현배(1971)와 박병채(1992)는 부사적 연결 어미로 분류하고, 이승녕(1985)은 「-게」와 「-디(지)」만 부사형 어미로 분류하고 있는 등 그 분류에서도 그 분류 범주도 다양각색이다.

어미 자체는 일정한 의미 없이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문장을 이어 준다기보다 동사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 문법체계에서는 부사형 어미로 분류하는 이도 있으나 부사처럼 수식한다기보다는 본래의 의미를 갖는 본용언과 서술어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며 서술어의 의미를 보조하는 보조 용언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사형 어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보조적 연결 어미라는 용어를 채택한다.

(1) 「-아/어」

문헌을 통해 나타난 의미를 살펴 본다. 그 뒤에 “쥬다(봉사)”, “버리다(완료)”, “흐다(사동)”, “아니흐다(부정)”, “지다(피동)”, “계시다(존재 ‘있다’의 높임말)”, “보다(경험)” 등의 보조 용언이 온다.

(77) ㄱ · 사롬의 그릇 노릇호물 도안 쥬며(太上 大文解5)

· 스시제향으로 속되호야 풀리 쥬기을 축원축수호디(龜君11)

ㄴ · 네법 밧기 증심을 드히며 오곡을 호히 버리오며(太上 大文解6)

· 화상을 혈어 바리오미 이러호 연괴라(過化11)

ㄷ · 군지 세 가지 두려워 호음과 네 가지 아는 것스로(三聖4)

ㄹ · 얼굴 밧치 깃기 아니호시는 듯 호야 곶오사터(南宮12)

ㅁ · 제 손썸닥으로 제 얼굴 쳐 두 불이 부어터 지고(龜君15)

· 살이 점점 썩고 허여 저 간과 창지 다 비며(龜君23)

ㅂ · 한 집에 쥬장이 되신 계신지라(龜君23)

- ㅅ · 뒤를 따라 나아가 보오니 메군의 성상에 땀흔적이 계시더라(過化18)
- 유정의 궁이 조신을 만나 기록헌 글을 일거 보니(龜君25)
- 또 한 집의 촌져 이르러 보미(龜君26)

(2) 「-개」

어떤 동작이나 상태에 도달하거나 사역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이 뒤따른다.

(78) 가 · 시비를 온당치 아니케 하며 향비는 올흔 도리의 어긋오며(太上 大文解4)

- 사롭의 지물을 모손케 하며(太上 大文解6)
- 뵈성의 거처를 허롭케 하며(太上 大文解6)
- 사롭의 공을 문흐지르케 하며(太上 大文解6)
- 사롭의 뜰거술 궁진케 하며(太上 大文解6)
- 음난과 욕심이 법도의 지나케 하며(太上 大文解8)
- 그 망녕되이 취흔 갑술 갑게 하고(太上 大文解10)
- 모든 아전을 권하여 법을 직회케 하고(太上1:13)
- 하늘 쏜의 알외여 상대계서 착흔 이를 상주시케 하단 말슴(關明8)
- 너른 하늘 아러 다 반포케 하니라(關明9)
- 시위케 하라(關明14)
- 상대계 알외여 발키 법을 정하여 하계에서 스스 마음을 용납하고 의논하여 곳치지 못케 하고 (關明25)
- 스롭과 만물을 리케 하며(南宮7)
- 방목 중의 수결 못 두신 즈를 밧고케 하라(南宮11)
- 무너진 풍속을 썬 흥화케 하면(三聖 拜心5)

나 · 가아미 굶기 잇서 급흔 비의 잠기케 되기로(南宮6)

다 · 관곽을 시주하여 죽음을 드러나케 말며(南宮7)

/ㅎ/는 모음 뒤에서는 /ㄴ/만 줄고 자음 뒤에서는 다 줄어 든다.

- (79) · 남의 형대를 불화케 말며(南宮8)
· 남의 부즈를 불목케 말며(南宮8)

접사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 본다.

- (80) · 이 살이 도적의 인후를 쉼의게 호쇼셔(過化17)
· 점점 무궁한디 입히게 하리니(敬惜8)

(3) 「-지/디」

부정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으로, “아니하다(부정)”, “아니다(부정)”, “못하다(불능)”, “말다(금지)” 등이 뒤에 온다.

- (81) ㄱ · 스람의 단쳐(短)를 드러니지 아니하고(南宮12)
· 길하고 경스의 님은 피하여 오지 아니하며(太上 大文解1)
· 오리진 아니하여 동궁의 병환이 겨시미(太上1:7)
· 일즉 사람의 착함을 가리우지 아니하며(太上1:38)
· 마음이 이동치 아니하는 조는 스람이 아니며(南宮5) LIBRARY
· 착한 거슬 알고 허지 안니하면(繼君9)
- 나 · 요스흔 길은 드되진 말며(太上 大文解1)
· 어두운 집속의도 속이진 말며(太上 大文解2)
- ㄷ · 남의 형태 온전치 못함을 보고 흥보아 웃기하며(太上 大文解7)
· 그 일흠은 보진 못하고(太上1:9)
· 홀노 문데게 결을치 못하야더니(南宮1)
- ㄹ · 도적이 침노치 안케 하기와(繼君1)

- 호물며 보용이 소소호야 터럭만큼도 어긋지 안일 것시리요(過化4)
- 집집이 호 편식 두지 안니미 업서(龜君5)

- ㅁ · 드드여 머느리를 보니지 아낫더니 오라지 아니호여 그 지아비 도라와 부뷔 서로 보
전호니라(太上1:22)
- 아들이 변시 슈족이라 면전의 잇지 아니면(南宮4)

다음은 어간 말음/ㄹ/이 탈락된 예이다.⁴⁰⁾

- (82) ㄱ · 만일 늘거도 오히려 회과호 줄 아지 못호면(南宮12)
- 은근이 예로 바드지 안니호니(龜君6)
 - 더러운 남그로 음식 민드지 말며(龜君7)
 - 극히 성호면 도로혀 오리고 기지 못호물 근심호리라(龜君29)
 - 도적이 갈아드려 날니짓기를 마지 아니호미라(過化10)
- ㄴ · 엇지 집에 모시고 집에서 빌지 안니호리요(龜君2)

다음의 예는 부정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디」와 「-호-」가 줄여진 것으로 본다.



- (83) ㄱ · 만일 날 이미 업스면 선악이 밋디 안니미니(龜君9)
- 더더로 소와 기을 먹디 아니 호기로(龜君20)
 - 형이 경계호디 듯디 아니호드니(龜君23)

40) “ㄹ 탈락” 용언들은 /ㄴ/, /ㅅ/ 등의 음운이 뒤따라 오면 탈락된다. 그러나 근대 국어에서는 그러치 않은 조건에서도 탈락됨을 보이고 있다. 이를 살펴 보면 다음 예와 같다.

- 나도 알고 남도 아단 말이라(過化4)
- 너 천리 머다 안니호고(龜君12)
- 어미 병구완 호기을 비드니(龜君21)
- 세상에 한 가지 음공이 조흔 줄을 아나 명명헌 중에 몬져 성씨을 가져 표호리라(龜君36)

- 말을 맞치리 되디 아니호시거늘(龜君26)
- 능히 복을 맛디 못헐 뿐 아니라(龜君29)

- ㄴ · 사롬을 히디 말나 호며(太上1:13)
- 크게 귀디 못호면 반드시 골며 죽으리로다(太上1:16)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84) · 건쥬 빅성을 모도 술오지 못홀진디 첩이 당당이 홀노 술지 아니려 호노라(太上5:9)
- 소소한 버러지와 무지흔 초목이라도 오히려 상히오지 말거시라(太上 大文解2)
 - 므음이 밖으면 가리오지 안니호느니(三聖19)

접사와의 결합 양상을 살펴 본다.

- (85) ㄱ · 세상 스롬이 이 글을 보고 더러이지 말고(龜君14)
- 일즉이 다시 삭이지 못흔 연고로(龜君27)

- ㄴ · 맛당이 김히 감초아 스스로 볶히지 말나(太上3:23)
- 급혀 쌍을 갈히지 못호고(龜君27)

- ㄷ · 사롬의게 구청호다가 닐우지 못하면(太上 大文解6)
- 빅후는 게 일우지 못호되 스스로 저바리고(三聖23)
- 일이 삿슬 일위지 못흔 지 다 가마글고(龜君6)

- ㄹ · 가득호되 넘치지 아니호면(龜君38)
- 불을 금혀 외와 슈플을 살오지 말며(南宮8)

(4) 「-고」 41)

「-고」가 쓰인 예는 이 연구에서 다른 문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아직

까지는 보조적 연결 어미의 쓰임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논의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조적 연결 어미는 종래에 부사형 어미라 지칭되어 온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연결어미의 범주에 넣을 수 없지만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여 하나의 서술어를 이루게 해 주는 구실을 함으로 연결어미 범주에 묶어 살펴 보았다. 보조적 연결 어미는 어미 자체는 일정한 의미 없이 용언과 용언을 이어 하나의 서술어를 형성하는 연결 어미다.

「-아/어」 뒤에는 “쥬다(봉사)”, “브리다(완료)”, “흐다(사동)”, “아니흐다(부정)”, “지다(피동)”, “계시다(존재)”, “보다(경험)” 등의 보조 용언이 온다.

「-게」 뒤에는 “흐다”, “되다”, 등 어떤 동작이나 상태에 도달하거나 사역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이 뒤따른다.

「-디/지」 뒤에는 “아니흐다(부정)”, “아니다(부정)”, “못흐다(불능)”, “말다(금지)” 등 부정을 뜻하는 용언이 뒤에 온다.

「-고」의 예는 문헌이 한정되어 나타나지 않았으나 근대 국어 시기의 다른 문헌에서 나타나는 바 쓰였으리라 생각된다.

41) · 음식 먹고 시븐 모양이 업서(태평광기연해1:49)

Ⅲ. 結 論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太上感應篇圖說諺解(1852)』 등 道經類를 문헌을 대상으로 19세기 국어의 연결 어미를 살펴 이를 현대 국어의 체계에 맞춰 분류하고, 그 의미와 특성을 고찰하였다.

대등적 연결 어미로 '나열'의 어미에는 「-고」 「-며」, '반복'의 어미에는 「-락」, '선택'의 어미에는 「-으나」이 있다.

이들의 의미를 살펴 본 결과 '나열'의 「-고」는 '사건의 나열·첨가'를 나타내며, /ㄱ/ 탈락이 나타나는 환경은 중세 국어처럼 많지 않고, 지정사 뒤에서 나타나긴 하나 근대 국어 시기에 이미 「-요」로 변화하여 「-요」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며」는 '사건의 나열·동작의 반복'을 나타낸다. '반복'의 「-락」은 '동작의 반복'을 나타내며, 상반된 두 말이 이어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선택'의 「-으나」는 선어말 어미 「-거-」를 앞세우는 특징이 있다.

종속적 연결 어미는 다른 문장에 종속적인 관계로 연결시켜 주는 연결 어미를 말한다.

구속의 연결 어미는 원인, 조건, 가정, 반응 등 뒷말을 제약하는 어미로

「-으나」, 「-면」, 「-르시/르세」, 「-아/어」, 「-니디/니디」, 「-르진디/르진디」, 「-관디」, 「-든」, 「-눌/늘」, 「-디」, 「-므로」가 여기에 속한다.

양보의 연결 어미는 앞의 사실은 긍정하기는 하나 뒤에 부정적인 사실을 함축하는 어미로 그 조건이 개방적이라는 점에서는 제약법과 반대가 되며

「-아도/어도」, 「-고도」, 「-나」, 「-건마는」, 「-거니와」, 「-니들」, 「-지라도」, 「-지연정」이 여기에 속한다.

의도의 연결 어미는 희망, 의도를 나타내는 어미로 「-고져/고즈/고자/과져」, 「-자」, 「-려」가 여기에 속한다. 이 어미에는 그 의미를 점차 상실해 갔으나 의도를 뜻하는 선어말 어미 「-오/우-」가 쓰인다.

목적의 연결 어미는 「-랴/라」가 여기에 속하는데, 그 의미가 구분되지 않고 「-랴/라」가 목적으로도 쓰이고 의도로도 쓰임을 보여 준다.

도급의 연결 어미는 어떤 상황에 이름을 나타내는 어미로, 「-도록」, 「-게」가 여기에 속한다.

전환의 연결 어미는 다른 동작이나 상태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어미로, 「-다가/ㄷ가」이 여기에 속한다.

설명의 연결 어미는 설명, 인용을 나타내는 어미로 「-되」가 여기에 속한다.

익심의 연결 어미는 앞일이 되어가는 정도에 비례해서 뒷일도 되어가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로 「-르스록」이 여기에 속한다.

보조적 연결 어미는 종래에 부사형 어미라 지칭되어 온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연결어미의 범주에 넣을 수 없지만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여 하나의 서술어를 이루게 해 주는 구실을 한다. 보조적 연결 어미는 어미 자체는 일정한 의미 없이 용언과 용언을 이어 하나의 서술어를 형성하는 연결 어미다.

「-아/어」 뒤에는 “쥬다(봉사)”, “브리다(완료)”, “흐다(사동)”, “아니흐다(부정)”, “지다(피동)”, “계시다(존재)”, “보다(경험)” 등의 보조 용언이 온다.

「-게」 뒤에는 “흐다”, “되다”, 등 어떤 동작이나 상태에 도달하거나 사역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이 뒤따른다.

「-디/지」 뒤에는 “아니흐다(부정)”, “아니다(부정)”, “몰흐다(불능)”, “말다(금지)” 등 부정을 뜻하는 용언이 뒤에 온다.

「-고」의 예는 문헌이 한정되어 나타나지 않았으나 근대 국어 시기의 다른 문헌에서 나타나는 바 쓰였으리라 생각된다.

근대 국어의 연결어미는 중세 국어의 그것과 비교할 때 /·/, /△/ 등의 문자 소실로 인해 많은 어미들이 소멸됨으로 인해 간소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중세 국어에 있었던 의도법 선어말 어미 「-오/우-」는 근대에 와서는 그 체계가 흔들리게 되었다. 그리고 敬語法에 있어서는 중세어의 尊敬法, 謙讓法, 恭遜法의 체계에서 尊敬法, 恭遜法의 체계로 移行한다.

시상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 양상을 보면 가장 먼저 확립된 것이 과거의 「-앗/엇-」이고, 미래의 「-겻」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 현재 시상 선어말 어미 「-는-」는 점차 모음으로 끝난 어간 뒤에는 「-ㄴ」이, 자음으로 끝난 어간 뒤에는 「-는」으로 분화하게 된다.

한 문헌에서조차 그 표기가 다르고 기록자의 언어 기호에 따라 다름이 나타나고⁴²⁾ 연구자마다 그 다름이 있어 형태소 분석에 있어 그 기본형을 정하는 것과 어미 분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의미 관계에 따라 분류하다 보니 복잡하고 다양한 것은 피했으나 그 체계가 문란해진 점도 없지 않다. 「-게」를 종속적 연결 어미의 '한도'와 보조적 연결 어미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분류했으나 그 분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연결 어미의 유형 분류가 형태 유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접속되는 문장의 의미론적 성격에 의해 결정되다 보니 대등 접속이라 할지라도 선행절이 후행절에 대하여 의미론적으로 의존적일 때는 종속 접속인지 의심스러운 점도 없지 않았다.

앞으로 새로운 연구 방법을 모색한다면 연결 어미의 체계가 정립되리라 생각하며, 17·8세기의 국어 연구도 활발히 진행된다면 이러한 부분적인 노력이 쌓여 근대 국어의 한 단편인 19세기 국어의 연구만 아니라 근대 국어의 全貌가 체계적으로 드러나리라 예상된다. 이렇게 할 때라야 비로소 국어사 기술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된다.

42) 「窺君靈蹟誌(1881)」는 중부 방언이 많이 사용되고 발음나는 대로 표기했다.

[19세기 연결 어미 일람표]

유형	의미	연결 어미의 실제
대등적 연결어미	나열	「-고」, 「-며」
	반복	「-락」
종속적 연결어미	선택	「-으나」
	구속	「-면」, 「-르시/르세」, 「-아/어」, 「-ㄴ디/ㄴ되」, 「-르진터/ 르진턴」, 「-관디」, 「-든」, 「-놀/늘」, 「-미」, 「-므로」
	양보	「-아도/어도」, 「-고도」, 「-나」, 「-건마늘」, 「-거니와」, 「- ㄴ들」, 「-지라도」, 「-지연정」
	의도	「-고져/고즈/고자/과져」, 「-자」, 「-려」
	목적	「-랴/라」
	도급	「-도록」, 「-게」
	전환	「-다가/드가」
	설명	「-되」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 「-게」 「-지/디」 「-고」



參 考 文 獻

- 姜吉云. 『國語史精說』. 螢雪出版社. 1993.
- 고영근. 『표준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87.
- 구본관. “중세국어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연구1, 중세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996.
- 김태곤. “연결어미 연구, 옛시가를 중심으로”. 백록어문 2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1987.
- 金次均. “國語 時制의 基本的 意味”. 藏菴 池憲英 先生 古稀 論叢. 螢雪出版社. 1980.
- 박병채. 『국어발달사』. 세영사. 1992.
- 安秉禧. 李玟鎬. 『中世國語文法論』. 學研社. 1990.
- 李基文. 『國語史概說』. 塔出版社. 1991.
- . “19세기 말엽의 국어에 대하여”. 난정 남광우 박사 화갑 기념 논총. 일조각. 1980.
- 이기백. “國語語民의 史的 研究”. 어문 논총 15집. 경북대. 1981.
- 이승녕. 『중세국어문법, 15세기어를 주로 하여』. 을유문화사. 1885.
- 李翊燮. 任洪彬. 『國語文法論』. 學研社. 1986.
- 李周行. “국어 어미의 의미(1)”. 이용주 박사 화갑 논총. 한샘. 1989.
- 임홍빈. “부정법{어}와 상대 진술의 {고}”. 국민대논문집 8. 1975.
- . “선어말 {-오/우-}의 확실성”. 국민대 한국학논총 3. 1980.
- . “先語末 {-거-}과 對象性”. 국민대 논문집 11. 1977.
- 정복순. “이음법의 하위 범주 설정”. 수련어문논집 19집. 부산여자대학교

- 국어교육과. 1992.
- . “조건씨끝의 통어적 특성, 15세기 국어를 대상으로”. 수련어문논집
22집. 부산여자대학 국어교육과. 1996.
- 최동주. “중세국어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연구1, 중세 국어』.
국립국어연구원.1996.
- 최현배. 『우리 말본』. 정음사. 1955.
- 허 용.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1981.
- 홍윤표. 『근대 국어 연구 I』.태학사. 1994.



<Abstract>

A Study of the Nineteen Century Korean Language of
Conjunction Ending

Kim, So-young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T'ae-g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meanings and features of the 19th Korean Language of Conjunction Ending, which has not studied completely so far since that its system and meaning has some analogies to Modern Korean Language.

And then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njunction Endings in some kinds of the Sacred Book in the end of the 19th century such as 「Translation of T'aesang kamengp'yun dosŏl」 (Pictures and stories of many people are favored by God such as kyansŭngjaekun is original name kyanu)

Its types are classified into Coordinating, Subordinating, Auxiliary Conjunction Endings.

Auxiliary Conjunction Ending has been regarded as an Adverbial Ending, so in the strict sense of the word, it did not treat as a Conjunction Ending. But with its role to become a predicate of a sentence, Auxiliary Conjunction Ending is investigated as a Conjunction Ending.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7.

As their Subordinate category, Coordinate Conjunction Ending is classified into Repeative, Arranging and Selective Endings. Subordinate Conjunction Ending is classified into Constraint, Intention, Yield, Purpose, Explanation, Conversion and Futher Endings. Auxilary Conjunction Ending is classified into 「-a/ǎ」, 「-ka e」, 「-di/ji」, 「-ko」 according to their ending types.

According to their meaning, Conjunction Ending type is classified, so they are often used in the same way. So far in the preceding studies, Conjunction Ending has been used in the different way but because of their meaningful analogy, it is used in the same category.

Modern Korean Language Conjunction Ending is more simplified than the Middle Ages Languages. Because the character /·/, /뵤/ has disappeared and 「-o/u」 has no meaning, the Ending types and Conjunction has changed.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the references, every detail of Endings is not known. Futhermore, I think Conjunction Ending will have a regular system by finding out new resources and systems. A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effort, the Modern Korean Language will have a full appearance, and futhermore, the whole description of Korean Language History can be shown.

